책을 내면서

고대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B. C. 8세기경)가 쓴 서사시 《신생》에는 《판도라의 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 함에서 불행과 고통, 기아와 살륙 등 온갖 재앙이 쏟아져나와 세상에 퍼지게 되였다는 고대그리스신화이다.

온갖 재앙의 대명사로 불리워져온 현대판 《판도라의 함》이 바로 남조선보수세력의 총본산인 《자한당》이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삶과 운명은 어떻게 되든 아랑곳하지 않고 사대매국과 전쟁소동, 동족대결과 부정부패 등 반민족, 반평화, 반인민적악정에만 매달려온 추악하고 너절한 쓰레기집단인 《자한당》.

《자한당》은 과거 《새누리당》에서 간판을 바꾸어 단 후부터 집권의 발판을 마련해볼 개꿈을 꾸면서 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와 여론몰이에 혈안이 되여 날뛰며 추악한 민심기만놀음으로 저들에게 불리한 형세를 되돌

려보려고 잔꾀를 부리여왔다.

최근시기 《자한당》패거리들은 그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한지붕아래 있다가 뛰쳐나간 《새로운 보수당》등 보수떨거지들을 그러모아 《미래통합당》이라는 간판을 새로 내걸고 《총선》에서 《승리》해보겠다고 미꾸라지의 가련한 룡꿈까지 꾸고있다. 그 너절한 정치적야욕실현을 위해 민심의 요구가 반영된 《준련동형비례대표제》를 악용하여 《국회》의원자리를 하나라도 더 긁어모으려고 《미래한국당》이라는 사이비정당을 날조해내는짓도 서슴지 않은것이 바로 《자한당》이다.

그러나 독사는 백번 허물을 벗어도 독사이며 《자한당》이 《미래통합당》으로 허울이나 바꾼다고 하여 파멸의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이 민심의 목소리이다.

남조선잡지 《신동아》 2020년 1월호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다.

《<태정태세문단세>처럼 국민은 이제 <민신한새자모모>를 외운다. <민자당>이 <신한국당>, <한나라당>이 되고 <새누리당>, <자한당>으로 이름을 바꾼 순서말이다. 하도 이름을 자주 바꾸니 급기야 이렇게 첫 글자를 따서 외울 지경이다. 일단의 국민은 이것을 <절

대 찍지 말아야 할 정당의 족보>로서 외운다. 으뜸당이 될지, 이쁜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한당>은 또 이름을 바꿀것이다. 그래서 <모모>를 남겨두었다. 무엇으로 바뀌든 찍지 말아야 할 정당이름 하나가 추가되는 순간이다.》

본사편집부는 《미래통합당》이라는 집단에 앞날이 없음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저 그 전신인 온갖 재앙의 본산 《자한당》의 추악한 정체를 폭로하는 도서를 내놓는다.

2020년 2월

차 례

1. 오물더미우에 돋아난 《독버섯》

한때 남조선정치계에 《귀태》라는 말이 나돌아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귀신 귀》자에 《태아 태》를 쓴 이 말에는 태여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있다.

이 말은 지난 2013년 7월당시 야당이였던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 《박근혜는 귀태》라고 규정하여 파문을 일으킴으로써 유명해졌다. 《귀태》라는 말을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리유는 남조선보수패당의 본산인 《자한당》이야말로 말그대로 이 세상에 태여나지 말았어야 할 《귀태》라고 말할수 있기때문이다.

력사의 시계바늘을 2016년말－2017년초로 되돌려보자.

당시 남조선사회는 력사에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일명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으로 하여 죽가마끓듯 하였다.

2016년말에 이르러 박근혜에 대한 지지률은 불과 4%로서 말그대로 남조선사람 거의 모두가 박근혜를 탄핵할것을 요구하였으며 덩달아 여당인 《새누리당》의 지지률도 10%대로 떨어져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남조선전역은 박근혜보수《정권》퇴진요구의 함성으로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박근혜와 그 사당인 《새누리당》의 악정에 분노한 남조선인민들은 한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말이면 수백만명씩 달려나와 서울의 광화문광장을 비롯한 남조선의 곳곳에

서 손에손에 초불을 들고 떨쳐나섰다.

남조선땅 곳곳에서는 《국민주권》을 선무당에게 빼앗기고 《국정》이 붕괴된 참혹한 현실을 통탄하는 분노의 초불이 밤하늘에 타올랐다.

초불에 비친 박근혜는 악취풍기는 부패의 왕초였고 초불에 의해 드러난 박근혜의 정체는 외세굴종의 등신, 동족대결의 미치광이였다.

남녘의 어디서나 활활 타번지는 초불, 민중이 손에 든 초불은 가리워지고 은폐되였던 어둡고 침침하고 썩어문드러진 모든 실체들을 들추어내며 박근혜《정권》이 무엇을 위한 《정권》이고 이 사회가 누구를 위한 사회였는가를 낱낱이 고발해주고있었다.

당시의 남조선상황에 대하여 한 언론인은 《미친, 이상한, 말도 안되는, 무분별한, 괴상한, 짜증나는, 열광적인》 등으로 번역되는 영어단어 《crazy》로 평하였다.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여 2016년 12월 남조선《국회》에서 박근혜《탄핵소추안》이 재적인원 300명중 299명의 참가하에 찬성 234표(반대 56표, 무효 7표, 기권 2표)라는 압도적차이로 통과되였다. 《국회》의 이 결정은 다음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판결하게 되여있었다.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을 계기로 타오른 초불은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후에도 꺼질줄 모르고 2017년 새해에 들어서면서 남조선의 전 지역에서 더 거세차게 타올랐다.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박근혜패당에게 차례진

비참한 운명은 집권 전기간 온갖 나쁜짓을 골라서 한 천하의 악녀의 죄행에 대한 쌓이고쌓인 인민들의 원한과 울분의 폭발이였다.

결국 남조선민심은 보수패당에게 준엄한 사형선고를 내리였던것이다.

헌데 이 초불민심을 기만하며 교묘하게 자기 이름을 바꾸어 달고 구린내나는 남조선정치판에 돋아난것이 바로 《자한당》이라는 독버섯이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민심의 이 사형선고를 받아들이고 석고대죄해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겠지만 초보적인 량심도 수치도 모르는 극우보수패거리들은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최후발악을 해댔다.

사실 박근혜의 사당이였던 《새누리당》에 닥친 위기는 이미전부터 예고된것이였다.

2016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 《새누리당》내부에서는 선거패배책임과 당권장악을 위한 파벌싸움이 그칠새 없었고 이로 인한 내부분렬은 한층 심화되고있었다.

《새누리당》안에서는 박근혜탄핵을 반대한 골수친박계와 탄핵에 찬성한 비박계를 비롯한 다른 계파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끝에 먼저 수십명에 달하는 비박계의원들이 《새누리당》을 집단탈당하여 《개혁보수신당》(가칭)이라는것을 만들어냈다. 남아있는 《새누리당》패거리들은 그들대로 《비상대책위원회》라는것을 만들어내고 그 위원장을 새로 임명하는 놀음을 벌리였다.

비상대책위원회를 선두로 한 《새누리당》패거리들은 민심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는 박근혜와 관련한 모든것을 지워버리는것으로 이른바 《환골탈태》하겠다고 요술을 피워댔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였던 인명진은 《<새누리당>은 몇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패거리정당, 친박사당으로 전락되였다.》, 《더이상 쇄신의 바람에 맞서지 말고 애당심을 보여 인적쇄신에 동참하라.》고 하면서 친박계핵심들의 반성과 자진탈당을 요구하였다.

이에 서청원, 최경환을 비롯한 골수친박패들이 《탈당강요는 중대한 범죄행위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여론몰이를 활용하려는 꼼수로서 중세기적마녀사냥이다.》고 반발하면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고아댐으로써 《새누리당》은 말그대로 풍전등화의 신세에 처하였다.

박근혜역도가 달아놓은 《새누리당》간판을 바꾸지 않으면 《박근혜색갈》을 지울수가 없고 《대선》에서도 민심의 저주와 분노의 과녁이 되는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는것을 타산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017년 1월 16일 당의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이른바 《국민공모》라는것을 벌려놓았으며 2월초 《국회》의원회의를 열고 당의 간판을 《자유한국당》(《자한당》)으로 바꾸어다는 광대극을 벌리였다.

위험이 닥쳐오면 몸뚱아리의 색갈을 변화시키는 카멜레온처럼 더러운 죄악이 드러나 민심의 규탄과 준엄한 심판이 닥쳐올 때마다 간판을 바꾸고 물갈이흉내를 피우는것이 바로 남조선보수역적당의 특기이다.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하여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주자유당》(《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한당》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바뀐 보수세력의 당명은 일일이 꼽아보기조차 민망스럽다.

지난 세기 90년대부터만 보아도 김영삼《정권》시기 《민자당》이라는 간판을 달고있다가 1995년에 있은 지방자치제선거에서의 참패, 굴욕적인 쌀시장개방과 전두환, 로태우의 비밀자금사건 등 사대매국과 반인민적악정, 부정부패로 얼룩진 추악한 죄악이 드러나 남조선민심을 완전히 잃게 되자 보수패당은 1996년 2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꾸어달았다.

또한 1997년의 《대통령》선거전에는 당시 《신한국당》의 후보로 나섰던 리회창이 《김영삼으로부터 넘겨받은 당을 가지고서는 선거에서 승산이 없다.》고 력설하면서 당명을 개정한지 불과 2년도 못되여 《한나라당》으로 둔갑하였다.

파쑈독재를 대물림한 극우보수세력의 집결처였던 《한나라당》 역시 《색갈론》싸움의 체질적악습으로 깡패식란동만을 일삼으며 남조선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가로막고 정치적대립과 사회적혼란만 가증시켰다.

그후인 2012년 2월 리명박보수역적패당의 극악한 동족대결과 사대매국책동, 권력층의 련이은 특대형부정부패행위로 하여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와 규탄이 거세지자 박근혜패거리들은 저들의 집권야욕을 실현하기 위해 《리명박지우기》라는 구호를 내들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또다시 당명을

바꾸는 놀음을 벌리였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간판을 바꾸어달았을 때에도 남조선인민들은 그 이름과 당의 상징을 두고 온갖 야유와 조소를 다 퍼부었다.

《<새누리당>의 앞에 붙은 <새>는 철새인가? 잡새인가?》, 《<누리>라는 메뚜기과 곤충도 있는데 이제부터는 메뚜기처럼 본격적으로 떼를 지어다니며 국민에게 해를 끼칠 작정이냐.》 하는 비난으로부터 《새무리당》, 《새부리당》, 《닭머리당》, 《새누더기당》 등 야유와 조소가 인터네트에 차고넘치였었다. 당의 상징색인 빨간색으로 칠한 당마크를 두고서도 《썩은 어금이》, 《대중목욕탕의 빨간 의자》, 《밥그릇같이 생긴걸 보니 당내에서 벌어지는 밥그릇싸움을 련상시킨다.》는 야유는 물론 《빨간 변기》같다는 조소도 울려나왔다.

또한 남조선여론이 평하듯이 보잘것없는 강남아낙네의 주술에 놀아난 박근혜년을 감싸돈것으로 하여 《새누리당》이라는 간판에는 언제나 《개누리당》, 《내시환관당》, 《주범이당》, 《정계은퇴당》 등의 오명과 비난만 묻어다녔다.

이처럼 《자한당》의 래력을 파내려가느라면 력대로 파쑈독재의 썩은 즙만을 걸탐스럽게 빨면서 민심기만을 일삼아온 남조선보수패당의 정체성을 잘 알수 있다.

그 《새누리당》이 또다시 《자한당》이라는 간판을 바꾸어달고 당마크와 색갈을 교체하고 당강령과 규약까지 개정하며 요란하게 떠들어대였지만 이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으며 오히려 비난과 조소만 더해졌다.

당명이 확정되자마자 남조선인터네트홈페지들에서는 《호박에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지 않는다.》, 《죽은 시신을 화려하게 분장한다고 다시 살아날수 없다.》, 《당명개정이 아니라 해체와 소멸로 가야 한다.》, 《력대적으로 <자유>가 붙은 정당들의 운명은 비참하게 끝났다. 리승만의 <자유당>, 김영삼의 <민주자유당>, 김종필의 <자유민주련합> 등이 와해되거나 다른 정당에 흡수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등의 글들이 차넘치였다.

남조선사회의 정의와 민주를 말살하고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파쑈독재체제수립에 환장이 된자들에게 안겨진 응당한 경종이라 하겠다.

보수의 무덤에서 돋아난 《자한당》이 그래도 민심의 파도속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안깐힘을 쓰던 나머지 《쇄신》과 《혁신》의 먼지구름을 일으키며 《보수정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라는것도 만들어내여 세론을 끌어보려 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이 내든 《6대혁신가치》이니, 《6대핵심가치》이니 하는 잡동사니들로 매닥질된 《새로운 가치론》이라는것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살펴보아도 《새로운것》이란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으며 민심을 우롱하는 말장난뿐이였다.

실례로 《자한당》은 보수정치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국가도덕성》을 내세웠는데 리승만역도의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의 《자한당》에까지 이어오는 수십년간의 부정부패와 패륜패덕으로 살쪄온 《썩은 당》, 《패덕당》의 계보를 별안간 《도덕성》이라는 면사포를 쓴다고 하

여 가리울수 있단 말인가.

《자한당》이 낯간지럽게 설파한 《따뜻한 사회》와 《준비된 미래》라는것도 민심을 우롱하는 요설에 불과했다.

보수가 내흔드는 《따뜻한 사회》란 대중을 지렁이처럼 여기며 각종 요시찰명단 같은것들을 조작하여 탄압하고 민주민권을 깡그리 말살하는 지옥사회이며 《준비된 미래》란 가진자가 더 잘살고 못 가진자는 더욱 빈궁속에 몰아넣기 위한 제2, 제3의 리명박, 박근혜《정권》의 부활인것이다.

보수의 품이 그렇게 따뜻해서 《세월》호의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바다속에 수장되여 생죽음을 당했고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참혹하게 쓰러졌는가.

보수가 만든 사회가 그렇게 아름다워서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각종 살생부에 올라 인권과 자유를 무참히 짓밟혔고 남조선이 자살순위 세계 제1위를 기록하였는가.

독사는 열백번 허울을 벗어도 독사인것이다.

《새누리》라는 부패와 탐욕, 온갖 적페가 구데기처럼 서식하고있는 쓰레기, 오물더미우에 돋아난 독버섯이 바로 《자한당》이다.

독버섯은 처음 보기에는 색갈이 곱지만 거기에 홀려 잘못 먹기라도 하면 한시간도 못되여 창자가 끊어지는듯 한 아픔을 느끼며 나중에는 생명을 잃고만다.

간판이나 바꾸어단다고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민족에 해되는짓만 골라서 한 남조선보수패당의 죄악은 가려질수도, 가벼워질수도 없는것이다.

2. 사대매국에 명줄을 건 특등매국노패당

사대와 매국은 70여년전 리승만역도의 《자유당》으로부터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이어 《자한당》으로 간판을 바꾸어달며 목숨을 부지해온 남조선보수패당의 뼈속까지 배겨있는 유전자라고 말할수 있다.

사대주의는 큰 나라, 발전된 나라를 섬기고 숭배하는 노예적굴종사상이며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스스로 낮추 보고 멸시하는 민족허무주의사상, 자기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배반하는 매국배족의 사상이다.

사람이 사대주의를 하면 머저리가 되고 민족이 사대주의를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이며 교훈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한당》과 그 전신들은 력사의 이 교훈은 안중에도 없이 숭미와 친미, 친일사대매국에 미친듯이 매달려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잔명을 구차하게 부지하여왔다. 《자한당》과 그 조상들의 사대매국책동으로 말미암아 지난 70여년간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리익은 무참히 짓밟히웠으며 온 남조선땅이 외세에 짓눌려 신음하고있다.

돌이켜보면 한생을 친미에 살다가 미국에 의해 버림받은 리승만역도도 그렇고 미국의 충견노릇을 했건만 종당에는 상전

에 의해 지옥행을 한 《유신》독재자 박정희 그리고 미국의 사생아들이였던 《5공》, 《6공》의 독재자 전두환과 로태우, 《문민》의 탈을 썼던 김영삼과 그뒤를 이었던 리명박, 박근혜역도 할것없이 모두가 미국에 의해 철저히 길들여진 숭미분자들이였고 친미사대로 악명을 떨친자들이다.

이자들은 모두가 미국의 손때묻은 주구들로서 미국상전에게 나라와 민족의 리익을 팔아먹는 매국배족행위를 밥먹듯 일삼아왔다.

숭미와 친미를 《유전자》로 품고있는 《자한당》패거리들의 사대매국망동은 선임자들을 훨씬 릉가하였다.

《자한당》대표 황교안의 친미행동만 놓고보아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대표자리에 올라앉은 얼마후인 2019년 4월 황교안은 서울주재 미국대사를 찾아가 머리를 조아리면서 온갖 노죽을 다 부리였다. 이자는 이날 미국대사앞에서 《<한>반도정세가 어려운 시점에 <한미동맹>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대사를 만나게 되여 기쁘다.》, 《<한미동맹>은 흔들림이 없는 오랜 <동맹>이고 <혈맹>이며 북과 대치하는 측면에서 말할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런가 하면 《<한미동맹>은 흔들려서도, 손상되여서도 안된다. <한>미 량국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이 노력할것이다.》고 하면서 온갖 아첨을 다 늘어놓았다.

참으로 민족자주의식은 꼬물만큼도 찾아볼수 없는 특등사대매국노의 역겨운 추태였다. 황교안 이전의 《자한당》대표

였던 홍준표도 친미사대매국에서는 조금도 짝지지 않았다.

이자는 《자한당》의 《대통령》후보로 나섰던 2017년 4월 서울주재 미국대사대리를 만나 《<한>미관계는 <죽고사는 문제>이며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죽고사는 문제>인 <한>미관계를 중요하게 보고 <싸드>배치에 찬성하고있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자의 숭미사상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것은 《대통령》선거에서 패한 후 곧바로 미국으로 도피한 한가지 사실만 놓고보아도 충분히 알수 있다.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로 흘러내린다고 대표감투를 쓴 자들이 하나같이 이런 숭미, 친미분자들이니 그 졸개들 역시 친미라면 사족을 못쓰고있다.

그 대표적실례가 지난 2017년 9월 《자한당》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소속 《특사의원단》떨거지들의 미국행각이다. 《자한당》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이 《특사의원단》은 행각기간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 국무성 차관보대행, 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분과위원장,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 등 미행정부와 의회의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남조선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해줄것을 구걸하는 반민족적망동을 부리였다. 이자들의 망동이 얼마나 루추했으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자한당》패거리들의 추태를 《사대외교》라고 비난했겠는가.

각계의 비난과 조소가 비발치는데도 불구하고 그해 10월에는 당시 《자한당》대표 홍준표가 또다시 미국에 날아가 미국의 전술핵무기배치를 구걸했으며 2019년 2월에는 《자한당》

원내대표 라경원이 미국에 기신기신 찾아가 《북의 완전한 비핵화이전에 미행정부가 북과 종전선언 등을 론의하는 분위기에 우리 국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보이고있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2019년 7월 라경원은 남조선을 행각한 백악관의 고위관계자를 만난데 이어 11월에는 미국에 찾아가 《선거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총선>이 열리는 2020년 4월을 전후로 북미회담을 개최하지 말아달라.》고 애걸하였으며 《자한당》떨거지들도 서울주재 미국대사를 찾아가 같은 내용을 구걸하는 망동을 부리였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남조선의 여야당인사들은 《라경원과 <자유한국당>은 민족을 망신시킨 반평화세력, 민족을 팔아먹은 매국세력, 력사의 죄인이다.》, 《<총선승리>를 위해 해괴한 궤변으로 <북풍몰이>를 하는 라경원을 의원직에서 당장 해임시키라.》고 규탄하였다. 친미사대를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자한당》패거리들의 추태는 이자들의 더러운 몸뚱아리에 조선사람의 피가 한방울도 흐르지 않는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자한당》의 친미사대매국책동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에서도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전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를 실현해보려는 미국의 간악한 흉계와 상전을 등에 업고 《북진》을 이루어보려는 리승만역도배들의 어리석은 망상이 일치되여 지난 1950년 7월 이른바 《대전협정》이라는것이 체결되였다. 이 협정으로 하여 남조선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이 통채로 거머쥐고 행사한다는것

이 《법》적으로 고착되게 되였다.

군작전권과 통수권은 주권국가의 징표이다.

오늘 세계가 남조선을 미국의 철저한 식민지로, 51번째 주로 락인하고있는 중요한 리유중의 하나도 년대와 세기를 이어 70년간이나 초보적인 군권마저 외세에게 내맡긴 치욕을 당하고있기때문이다.

하여 지난 기간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되찾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왔으며 그로 하여 2006년에 남조선과 미국사이에는 2012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조선에 넘겨준다는 합의가 마련되였었다.

하지만 《자한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있던 2010년 리명박패당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2015년에 하기로 미루었으며 《한나라당》의 뒤를 이은 《새누리당》이 집권하였던 2014년에 박근혜패당은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을 무기한 연기하였다.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송두리채 섬겨바치고 영원한 노예로 살려는 굴종사상은 바로 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 《자한당》패거리들의 골수에 배긴것이다.

이러한 매국노들이기에 최근시기 전시작전통제권전환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자한당》것들은 그것을 반대하여 불에 덴 송아지처럼 날뛰군 하였다.

《자한당》 대변인이라는자가 나서서 《조건에 기초해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왜가리청을 돋구었는가 하면 그 무리들속에서는 《충분한 자주국방력량을 갖춘후 북핵페기에 맞춰 전작권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낮도깨비

같은 소리도 울려나왔다. 초보적인 군사지휘권마저 외세에 내맡기고 청년들을 미국의 전쟁대포밥으로 섬겨바치려는 《자한당》의 망동은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자한당》떨거지들은 최근 미국이 남조선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방위비분담금》문제를 두고서도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

남조선이 미국에 해마다 섬겨바치는 그 무슨 《방위비분담금》이라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우리 민족을 멸살시키려는 북침전쟁비용, 강점군의 끝없는 방탕과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향락비용이다. 2019년에 있은 《방위비분담금》협상들에서 미국은 그해에 1조 389억원이였던 《방위비분담금》을 2020년부터는 5배이상으로 올리라고 남조선당국을 강박하였다.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남조선으로부터 《방위비분담금》명목으로 강탈한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다 못해 변놓이까지 하며 배를 불리우고있다. 쓰고 남은 《방위비분담금》 즉 루적된 미집행금만 해도 천문학적액수에 달한다. 공개된 자료만 보아도 2018년 6월말까지 1조 405억원에 이르는 미집행금액이 루적되고 미집행현물지원금도 9 864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미국의 이러한 날강도적횡포에 절대다수의 남조선인민들이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다.

하지만 《자한당》패거리들은 민심의 이러한 분노앞에서 공개적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떠들지 못하였을뿐 속으로는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그것은 2019년 11월 남조선《국회》에서 《방위비분담금의 공정한 합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데 이어 40여명의 여야《국회》의원들이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하여 《미국은 거짓협박을 멈추라.》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을 때 이 성명서발표에 《자한당》소속의 《국회》의원들은 한명도 머리를 들이밀지 않은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자한당》패거리들은 《방위비분담금은 돈문제가 아니다.》, 《<한>미사이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고 비린청을 돋구면서 저들의 굴종행위를 정당화했다.

가재는 게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듯이 오직 미국의 리익을 위해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를 마구 퍼주는것쯤은 새발의 피도 안되게 여기는것이 바로 특등매국노 《자한당》의 본심이고 정체인것이다.

사고와 행동을 미국의 리익실현에 맞추고 사는 《자한당》패거리들은 2019년 10월 대학생진보련합소속의 대학생들이 서울주재 미국대사관의 담장을 불의에 뛰여넘어가 《방위비분담금》인상을 반대하는 구호를 웨치자 큰 변이나 난것처럼 목에 피대줄을 돋구어댔다. 《자한당》은 경찰청장까지 불러다가 《국회》에서 《미대사관저침입사건관련 긴급간담회》라는 것을 벌려놓고 《이 <정권>이 지향하는바가 친미가 아니라 반미라는 생각때문에 경찰청이 소극대응한게 아니냐.》고 닦아세웠다. 다음날 열린 《국정감사》장에서도 《자한당》소속《국회》의원들은 《경찰이 무기력하게 대응했다.》, 《영상을 분석해 대학생들에게 사법조치를 하는것을 검토하라.》, 《우리

안보와 경제를 도와주는 미국의 대사관저를 침입한것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세상이 어떻게 되는것이냐.》고 기염을 토하면서 의로운 행동을 한 대학생들을 범죄자취급하고 미국에 아부아첨하는 망발을 내뱉았다.

친미와 친일은 《자한당》이라는 갓을 유지하는 두 끈이다. 두 갓끈중 어느 하나가 끊어져도 갓이 벗겨지기에 《자한당》은 친일사대매국에도 기를 쓰고 매달리였다.

최근시기 날로 악랄해지는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침략행위를 극구 비호두둔하는 《자한당》의 망동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2018년 10월 남조선《대법원》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 13년만에 4명의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할데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남조선 《대법원》은 1965년의 《한일협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이 무효라는 일본측 주장에 대해 《배상청구권은 <한일협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했다.

남조선의 여러 정당과 단체, 각계층 인사들이 이 판결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 판결을 두고 《한일협정》을 위반했다고 생떼를 쓰면서 남조선에 대한 경제침략과 보복행위에 매달리고있다.

문제의 《한일협정》으로 말하면 《자한당》의 전신인 《민주공화당》이 집권하였던 1965년 박정희역도에 의해 조작된 매

국협정이다.

박정희역도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왜왕에게 멸사봉공하겠다는 《충성혈서》와 함께 참군열망을 피력한 편지를 섬나라족속들에게 섬겨바쳐 괴뢰만주군관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졸업후 일본륙군사관학교에 입학하는 《특혜》까지 받은 극악한 친일매국노라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박정희가 얼마나 친일매국에 환장한자인가 하는것은 역도가 다까끼 마사오로 《창씨개명》을 한것도 성차지 않아 오까모도 미노루라는 완전한 일본식이름을 애용한데서 여실히 알수 있다.

《한일협정》체결당시 그 구성부터가 일제에게 복무한 《특등일본인》들로 이루어진 《민주공화당》패거리들은 《일본에 의탁하지 않고서는 래일이 없다. 제2의 리완용이 되고 매국노라는 말을 듣는 한이 있어도 협정은 꼭 체결하겠다.》고 떠들어대면서 일제의 강제《합병》은 거론하지도 않고 식민지통치에 대한 사죄배상은 요구조차 하지 않았으며 《원조》의 미명하에 3억US$, 《경제협력》이라는 간판밑에 5억US$의 차관을 받는것으로 배상청구를 포기하는 굴종행위를 저질렀다.

바로 이 《한일협정》을 위반했다는것을 코에 걸고 일본반동들은 남조선경제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반도체생산의 필수소재들에 대해 수출규제조치를 내리였을뿐아니라 남조선을 《백색국가》명단에서 제명하는 조치도 취하였다.

뿐만아니라 2019년 1월 조선동해상에서 남조선군함선에 대해 일본《자위대》의 해상순찰기가 위협비행을 가하고 우익언론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남조선에 대한 비난여론을 조성하는

등 일본은 여러 분야에서 도발을 일삼았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곳곳에서 일본제품불매운동, 일본려행중지운동, 아베규탄투쟁을 벌리는 등의 반일투쟁을 강도높이 벌리였다.

그러나 친일사대매국에 환장한 《자한당》은 남조선 각계층의 이러한 반일투쟁을 헐뜯으면서 일본반동들과 한짝이 되여 날뛰였다.

원래 《자한당》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손해배상재판에서 일본의 편을 들어온 친일매국집단이다. 《자한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하던 2013년 11월당시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박준우, 《국무총리》 정홍원으로부터 《대법원》에 상정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재판에서 배상판결이 확정되면 일본과의 관계가 복잡해질수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박근혜역도는 《판결이 확정되면 큰일이다. 합리적으로 잘 대처하라.》고 고아대며 아래것들을 들볶아댔다.

박근혜는 또한 당시 《대법원장》이였던 량승태를 시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재판의 주심에게 《일본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되면 외교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압력을 가하는 비렬한짓도 서슴지 않았다.

박근혜역도의 사대매국기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한당》은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일본기업이 배상할것을 요구한 《대법원》판결이 나오자 그를 저지하기 위해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황교안, 라경원, 홍준표를 비롯한 《자한당》패거리들이 매일같이 언론에 나서서 《일본에 대한 강경대응은 바람직하

지 않다.》, 《<한>반도유사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기지 못할 싸움에 끌려들어가는것은 재앙이다.》, 《지금은 친일을 할 때이다.》고 고아대면서 일본반동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안고 궐기한 광범한 인민들의 투쟁열기에 찬물을 끼얹고 아베일당과의 타협과 굴종을 선동해댔다.

지어 전 원내대표 라경원을 비롯한 역적당패거리들은 말끝마다 《우리 일본정부》, 《대일민국》이라는 망발을 버젓이 내뱉는가 하면 남조선 각계의 정의로운 반일투쟁을 《신쇄국주의》, 《감정적인 반일선동》, 《무모한 자살적행동》으로 모독함으로써 뼈속까지 친일인 저들의 매국적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았다.

라경원은 지난 2004년에도 서울에서 진행된 일본《자위대》관련행사에 뻐젓이 참가하였는가 하면 2018년에는 《일본자민당의 정권복귀와 아베총리중심의 자민당우위체제구축》이라는 제목의 간담회까지 여는 등 친일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매국노이다.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그의 지역사무실을 점거하고 《습관적매국》, 《뼈속까지 친일분자》라고 락서를 하는 등으로 라경원의 친일망동을 규탄하였다.

《자한당》패거리들의 이처럼 흉악한 친일매국망동에 극우보수정객으로 둔갑한 리언주,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 《바른미래당》(당시)소속 《국회》의원 류승민, 극우보수론객 지만원 등 어중이떠중이들까지 가세하여 《일본과 등을 지면 <한일동맹>이 끊어지고 안보가 위험해진다.》, 《아베수상에게 진

심으로 사죄드린다.》, 《강제징용은 조선인들에게 좋은 일》 등 차마 입에 담을수 없는 반역적인 망발들을 마구 내뱉으며 천년숙적에게 아부굴종할것을 력설하는 추태를 부렸다.

2019년 7월 남조선에서는 여러명의 극우보수매문가들이 우리 민족의 반일민족주의를 《반일종족주의》로 매도하면서 《강제징용은 없었다.》, 《일본군위안부는 매춘하러 간것》, 《독도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령토가 아니다.》는 내용이 담긴 쓰레기도서를 발간하였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층의 비난과 항의가 비발치듯 하였지만 유독 《자한당》패거리들만은 《<반일종족주의> 책을 잘 읽고 그것으로 무장한 전사가 되여 싸우겠다.》는 황당한 망언을 하여 친일매국노의 정체를 유감없이 드러내보였다.

《자한당》의 친일매국망동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남조선군함선에 대한 일본해상순찰기의 위협비행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라경원과 김무성을 비롯한 《자한당》패거리들은 《일본은 중요한 우방이다.》, 《<한>일간에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필요할 때는 적과도 동맹하는것이 외교이다.》고 지껄여대면서 《국익을 위해 유연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얼빠진 수작질을 해댔다.

역적패당은 박근혜보수《정권》이 일본군성노예범죄를 무마시키기 위해 조작하였던 《화해, 치유재단》의 해산이 결정되였을 때에도 《심중치 못한 결정이다.》, 《지나친 과거지향적 자세때문에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있다.》,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는 분리해야 한다.》는따위의 해괴한 망언을 줴쳐대며 과거죄악에 대한 배상을 회피해나서는 일본반

동들의 날강도적궤변을 비호두둔해나섰다.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종료문제가 초미의 문제로 떠올랐던 2019년 11월에도 《자한당》패거리들의 친일망동은 극도에 이르렀다.

남조선과 일본사이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나라당》집권시기인 2012년 6월 리명박패당이 《국무회의》에서 비밀리에 상정해 통과시켰으나 《밀실합의》, 《친일매국》이라는 각계의 비난이 거세지자 서명직전에 체결을 연기하였던 전적을 가지고있다. 그러던 이 협정을 《자한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했던 2016년 11월 박근혜패당이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체결하였다.

친일의 바통을 그대로 넘겨받은 황교안, 라경원을 비롯한 《자한당》우두머리들은 《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문제가 일정에 오르자 《지소미아파기는 미군철수론의로 이어질것이며 결국 안보와 경제에 초강력태풍이 들이닥칠것》, 《이대로 가면 <한>미일삼각안보협력붕괴뿐아니라 <한미동맹>도 파탄위기에 놓이게 될것》이라고 횡설수설해댔다. 지어 황교안은 2019년 11월 《지소미아종료반대》 등을 구실로 청와대앞에서 단식하는 해괴한 놀음까지 벌려 《해방이후 최초로 일본을 위해 단식하다 쓰러지는 <친일렬사>가 탄생하는건가.》라는 비난과 조소까지 받았다.

일본이 과연 어떤 나라인가. 이 땅에서 일제강점기가 종식된 때로부터 세월은 아득히 흘렀지만 장장 40여년에 걸친 식민지노예의 그 모진 민족적수난과 고통, 불행과 희생을 우리 민족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있다.

수많은 꽃다운 젊은이들이 허망한 《대동아공영권》야망의 제물이 되고 840만여명의 조선인청장년들이 강제징용으로 죽음의 고역장들에 끌려가 노예로동을 하였으며 20만명에 달하는 조선녀성들이 일본군성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민족의 말과 글, 이름까지 깡그리 말살하고 수많은 지하자원과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을 강탈해갔으며 가장 야수적인 방법으로 무고한 조선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도륙낸 일본야만들이였다.

아직도 눈도 감지 못한채 구천을 떠도는 수백만의 강제징용피해자들과 일본군성노예들의 령혼들이, 지금도 두눈을 부릅뜨고 살아있는 생존자와 그 후손들, 온 겨레가 천백배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것을 피터지게 절규하고있다.

그러나 섬나라 오랑캐들에 대한 굴종의식과 환상이 골수까지 차있는 《자한당》떨거지들이 《일본덕분에 속국에서 벗어났다.》, 《참 고마운 나라》라는 궤변까지 줴치면서 친일매국망동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는것은 그야말로 《을사오적》의 죄악을 릉가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 각계층이 《자한당》을 가리켜 《토착왜구당》이라고 비난하면서 《자한당》패거리들의 친일사대매국망동을 규탄한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친미와 친일사대굴종에 환장한 《자한당》역적무리들이야말로 외세에게 저들의 간도 쓸개도 통채로 섬겨바치다 못해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과 존엄, 리익은 물론 생존권마저 외세에게 내말겨 유린당하게 한 특등매국노집단이였다.

3. 동족대결무리, 평화와 통일의 암적존재

평화와 통일은 우리 조국이 분렬된 때로부터 지난 70여년간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해온 숙원이다.

돌이켜보면 민족분렬로 말미암아 우리 겨레에게 들씌워진 불행과 고통은 그 얼마였던가.

하기에 외세에 의해 민족분렬의 수난의 력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우리 겨레는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평화와 통일을 안아오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여왔다.

그러나 《자유당》을 원조상으로 한 남조선보수패당은 《자한당》이라고 간판을 바꾸어달 때까지 수십년세월 오직 동족대결과 적대행위, 전쟁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려왔다.

남조선의 력대 보수정당들치고 동족대결을 추구하지 않은 패당이 없었지만 그 도수와 광기에 있어서 최악을 기록한것이 바로 《자한당》이다.

역적패당은 당의 간판을 바꾸어단 첫날부터 민족내부에 불신을 조장하고 저들의 대결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별의별 지랄을 다 부리였다.

《자한당》의 전 대표였던 홍준표는 기회만 있으면 《5 000만 국민이 북의 <핵인질>로 되였다.》고 피대를 돋구면서 동족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조성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였다.

이자는 2017년 9월에는 그 무슨 《당원총동원령》을 내리

고 거리바닥에 뛰쳐나와 동족대결을 고취하며 란동을 부리였다.

조선반도의 정세흐름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속에서도 역적패당의 동족대결야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백두산의 장쾌한 해돋이와 더불어 밝아온 2018년 새해의 첫아침 평양에서는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 조국통일을 위한 장엄한 포성이 울려퍼졌다.

불신과 적대의 얼음장을 깨뜨리며 온 겨레를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에로 부르는 절세위인의 뜨거운 애국의 호소, 위대한 선언이 신년사를 통해 울려퍼졌다.

삼천리강토에 울려퍼진 절세위인의 력사적인 신년사에 새겨진 애국애족의 통일신념과 의지를 새겨안으며 온 겨레의 가슴가슴은 평화와 번영, 통일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커다란 격정, 환희로 끓어번졌다.

하지만 동족대결과 적대의식이 골수에 사무친 《자한당》패거리들은 새해벽두부터 공화국의 숭고한 동포애적조치들을 두고 《시간벌기전략》, 《전형적인 위장평화공세》, 《<한미동맹>을 흔들고 남남갈등을 조성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으로 악랄하게 헐뜯어대였다.

제23차 겨울철올림픽경기대회를 민족공동의 대사로 성대히 치르기 위해 기울인 공화국의 숭고한 동포애적조치를 두고 남녘겨레가 감격의 환호를 올릴 때 력사의 기슭으로 밀려난 《자한당》과 그에 추종하는 보수떨거지들은 감히 존엄높은 공화국기와 통일기를 훼손하는 무엄한 대결란동을 벌려놓았

다. 그런가 하면 《자한당》소속의 《국회》의원으로 겨울철 올림픽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의 감투를 쓰고있던 라경원은 《남북녀자빙상호케이 올림픽단일팀구성은 올림픽헌장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 북이 1936년 베를린올림픽을 련상시킬 만큼 이번 올림픽을 체제선전장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보내는 망나니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성태를 비롯한 《자한당》떨거지들도 이에 뒤질세라 《아무래도 이 <정권>이 올림픽을 북에 갖다바칠 기세이다. 올림픽을 한다는것인지, 북체제를 선전한다는것인지 헛갈린다.》,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둔갑했다.》고 왜가리청을 돋구어댔다.

극적인 정세변화속에서도 《자한당》패거리들은 있지도 않는 《북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어대면서 대세의 흐름을 돌려세워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였다.

역적패당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지지찬동해나선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북이 불러준대로 받아적은 선언》, 《북의 리익만 반영된 일방적인 선언》으로 모독하고 그 력사적의미를 깎아내리면서 북남선언들의 《국회》비준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나섰다.

2018년 10월 남조선당국이 9월평양공동선언과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의결하자 《자한당》은 대변인을 내세워 《헌법을 위반한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공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횡설수설했는가 하면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성태가 나서서 《상당히 안타깝고 실망스럽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자한당》이 얼마나 적대와 대결, 전쟁책동에 환장한 미치광이무리인가 하는것은 온 겨레가 지지찬동한 북남군사분야합의서리행을 사사건건 방해한데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민족의 평화념원이 반영된 북남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서 《북방한계선을 확실하게 포기한것》, 《북의 핵, 전략자산이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북에 손을 들고 투항한 자살행위》, 《북에 일방적으로 무장해제당한 굴욕적인 문서》라고 비방하면서 《국가안보차원에서 절대 수용불가하다.》고 악담질을 해댄것이 바로 《자한당》떨거지들이다.

대결광들에게는 평화가 곧 죽음이고 안정이 곧 불안이다.

하기에 화해의 손을 내민 동족에 대해서는 악랄하게 물어뜯으며 대결광기를 부리는 반면에 침략적인 외세에는 아부하고 굴종하면서 정세를 전쟁의 문어구에로 치닫던 과거에로 되돌려보려고 피를 물고 발악하고있는것이다.

역적패당은 북남군사분야합의서때문에 《안보와 평화가 무너지고있다.》, 《북에만 잘 보이면 된다는 좌파<정부>의 굴욕적인 대북정책이 낳은 결과이다.》고 떠들면서 지금껏 대결로 연명해온 생존공간을 완전히 잃고 력사의 뒤길로 사라지게 된 저들의 마지막운명을 건져보려고 단말마적발악을 하였다.

지어 《자한당》대표 황교안은 2019년 5월 비무장지대를 싸다니며 《남북군사합의서를 조속히 폐기해야 한다.》고 가을뻐꾸기같은 소리를 하다못해 《군은 <정부>, 국방부의 립

장과도 달라야 한다.》는 해괴한 발언을 하여 각계로부터 《쿠데타를 추동하느냐.》는 비난을 받았다. 이자는 그해 7월에도 그 무슨 《북의 미싸일도발 및 협박관련 립장문》이라는데서 《9.19남북군사합의를 페기하라.》고 고아대면서 대결광의 본색을 또다시 드러냈다.

독초뿌리에서는 독초만이 솟아나는 법이다.

북남합의들을 페기하라고 고아대는 《자한당》떨거지들의 추태는 지난 6.15시대에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용공리적문서》, 《정체성을 훼손시킨것》, 《무책임한 합의》라고 헐뜯고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배타적민족주의》, 《페쇄적민족주의》라고 모독해나섰던 《한나라당》역적들의 반민족적망동과 너무도 일맥상통하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이 역적무리들은 《2018국방백서》에서 《주적》표현삭제문제가 제기되였을 때에는 《주적》표현을 삭제하면 《군을 무력화시킬것》이라느니, 《력사의 심판을 받을것》이라느니 하고 고아대며 불에 덴 망아지처럼 날치였으며 민심의 강력한 요구로 끝끝내 《주적》표현이 삭제되였을 때에는 《개념을 삭제한다고 적이 없어지는것이 아니다.》고 독기를 뿜어댔다.

《자한당》의 동족대결광증은 케케묵은 《인권모략북통》을 아직까지도 두드려대는데서도 나타났다.

저들이 지난 기간 꾸며낸 모략적인 반공화국《인권》소동이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데 등이 달대로 단 《자한당》패거리들은 2019년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운영위

원회에서 《북인권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불평을 늘어놓으며 《인권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객적은 나발을 불어대다 못해 《흡수통일을 통한 북인권개선》이라는 대결망발까지 줴쳐댔다.

반인민적악정과 파쑈독재로 남조선을 사상최악의 인권불모지,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으로 전락시킨 인권범죄집단이 만고죄악에 대한 사죄와 반성은 하지 않고 도리여 존재하지도 않는 《북인권문제》를 부여잡고 행악질해대고있으니 역적패당이야말로 민족내부에 불신과 적대감을 불러올수만 있다면 지푸래기에라도 매여달릴 동족대결광들이다.

《자한당》의 동족대결정체는 2019년 10월에 발표한 《외교안보통일정책》인 《국민중심평화론》, 이른바 《민평론》에서 더욱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완전한 북핵페기》, 《강력한 <한미동맹>복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골자》로 하고있는 이 《민평론》에는 《<한>미간 핵공유협정을 체결하고 련합군사훈련을 조속히 복원》, 《상호주의에 립각한 새로운 남북군사합의 추진》, 《북핵페기에 맞춰 전작권전환》, 《국방백서에 <북=주적>개념삽입》, 《북인권개선을 위한 국제공조확대》, 《북핵페기단계에 맞춰 교류, 협력확대》와 같은 지극히 사대매국적이고 반민족, 반통일적인 내용들이 꽉 차있다.

《자한당》이 내든 《민평론》이라는것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집권하였던 시기 리명박, 박근혜역도가 내들었던 《비핵, 개방, 3 000》이나 《신뢰프로세스》, 《통일대박

론》, 《드레즈덴선언》 같은 동족대결정책들의 분렬주의적이고 평화파괴적인 내용들을 그대로 련상케 하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자한당》을 가리켜 《민족화해와 단합실현의 장애물》, 《<한>반도 평화보장의 암적존재》, 《민족의 미래와 번영에 해악을 끼치는 반역집단》이라고 규탄하였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대결집단,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암적존재인 《자한당》이야말로 평화번영과 자주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아온 민족반역의 무리였다.

4. 민주와 정의의 악랄한 교살광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사회적진보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력사의 갈피마다에는 정의와 민주에 도전하여 수십년세월 파쑈와 독재의 칼바람을 일으켜온 《자한당》과 그 조상들의 죄행이 기록되여있다.

일찌기 1960년대에 4월인민봉기이후 날로 강화되는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반파쑈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5.16군사정변이라는 더러운 구두발로 짓밟은것도 《자한당》의 조상인 《유신》독재자였고 1980년 5월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일떠선 광주인민봉기자들을 무참히 살해한자들도 다름아닌 《자한당》의 조상인 군사깡패들이였다.

원조상인 《자유당》때 벌써 《보안법》을 휘두르면서 파쑈독재를 실시하였으며 《민주공화당》시절에는 《반공법》과 《유신헌법》, 《사회안전법》을, 1980년대에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개정안》 등 무려 100여가지의 파쑈악법을 조작하여 남조선을 철창없는 감옥으로 만든 피비린내나는 죄악들이 《자한당》의 과거행적우에 어지럽게 도배되여있다.

《자한당》패거리들은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동족대결과 부정부패근절을 요구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초불항쟁에 의해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나고도 어떻게 하나 사회적

진보와 정의를 가로막기 위해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

그 앞장에는 바로 황교안이 서있었다.

황교안으로 말하면 일찌기 고등학교시절부터 《학도호국단》련대장을 하면서 《유신》독재실현에 앞장섰으며 대검찰청 공안과장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부장 등 공안검사로 악명을 떨친자이다. 황교안은 1989년 평양에서 진행된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였던 전대협대표를 철창속에 가두었는가 하면 동국대학교 교수가 평양방문시 만경대고향집방문록에 감상글을 썼다는 리유로 형사처벌하였으며 2002년에는 부쉬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여 반미투쟁에 나선 《한총련》소속 대학생들을 체포구금하고 불법집회 및 파업주도협의로 민주로총 위원장을 구속기소하는 등 진보세력탄압에서 악명을 떨치였다.

이자는 1998년에 쓴 《보안법해설》이라는 책에서 《<보안법>은 통일이후에도 존속되여야 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으며 2009년에 출판한 《집회시위법해설》에서는 1960년 4월인민봉기를 《혼란》으로, 박정희역도의 5.16군사정변은 《혁명》으로 서술하여 사회 각계의 규탄을 받은 철저한 파쑈독재광이다.

황교안은 박근혜역도의 각별한 신임을 받고 법무부 장관자리에 올라앉아서는 《국정원정치개입사건》과 《정윤회국정개입사건》을 깔아뭉개고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을 조작하는 등 《정권》유지의 돌격대로 활약하였다. 법무부 장관시절에 이자는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고는 그것을 리용하여 통

합진보당을 《종북세력의 집합체》로 몰아붙이면서 력사상 처음으로 《정부》이름을 도용하여 합법적인 정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괴이한 놀음을 벌려놓았다. 그리고는 제가 직접 재판정에 나가서 《통합진보당의 강령은 자유민주주의적기본질서에 위반되고 북의 사회주의를 추구한것》, 《당핵심세력인 지하혁명조직의 활동은 북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른것》,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을 내부에서 붕괴시키려는 암적존재》로 몰아붙임으로써 끝끝내 당을 해산시켰다.

이름그대로 《황당하고 교활한 안목》을 가진 박근혜의 앞잡이로, 박근혜가 가려워하는 부위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환관구실을 톡톡히 한 《공로》로 황교안은 2015년에는 박근혜에 의해 《국무총리》로 임명되였다.

《총리》자리에 올라앉아서도 황교안은 시위투쟁을 하던 남조선농민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는 아랑곳없이 《사전에 준비된것으로 보이는 이번 불법, 폭력시위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행태임과 동시에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결코 용납할수 없다.》고 떠벌이면서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권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또 박근혜역도가 제 애비의 《치적》을 미화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동족대결의식을 주입하기 위해 력사교과서《국정화》를 강행하려 할 때에도 그 앞장에서 날뛰였다.

남조선《국회》에서 박근혜가 탄핵된 이후에는 《대통령》권한대행의 직권을 람용하여 《세월》호참사당일 박근혜의 7시간 행적이 담긴 문서들을 비롯한 수만건에 달하는 청와대문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면서 박근혜의 범죄행위를 력사의 흑막속에 묻어버리기 위해 발악한것으로 하여 초불민심의 주적으로 규탄받았다.

지어 이자는 박근혜패당의 사대매국과 동족대결, 부정부패행위를 반대하여 수많은 남조선인민들이 손에손에 초불을 들고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와 투쟁을 벌릴 때 계엄령을 선포하여 광화문광장을 피바다로 만들 흉계까지 꾸미였다.

남조선의 군인권쎈터가 폭로한 기무사령부의 문건에 의하면 군부호전광들은 초불항쟁당시 서울에만 장갑차 500대와 땅크 200대를 들이밀어 초불항쟁참가자들을 무자비하게 살륙할 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행기회를 엿보았다고 한다.

2019년 11월 새롭게 폭로된 문건에 의하면 2017년에 기무사령부가 주동이 되여 계엄령을 선포하고 그 기간을 박근혜의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면 2개월, 탄핵기각시 9개월로 정해 《자한당》이 재집권할수 있게 다음기 《대통령》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려 했다는것이 드러났다.

이런 흉악한 계획을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의 감투를 쓰고있던 황교안이 직접 조직하고 집행하려 했다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뻔한 일이다. 남조선의 군인권쎈터는 기무사령부의 《계엄령문건》을 공개하면서 당시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였던 황교안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박근

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초불집회에 대한 군사력투입을 론의했다고 폭로하였다.

하여 민심의 저주와 규탄이 자기에게 쏠리게 되자 황교안은 《계엄령의 계자도 모른다.》고 교활하게 놀아대면서 어떻게 하나 범죄혐의에서 벗어나보려고 발버둥쳤다.

이자는 《자한당》의 대표라는 감투를 쓴 이후에도 사회의 민주화와 정의를 요구하여 일떠선 남조선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을 시비하고 부정하면서 독재와 파쑈의 칼바람을 불러오기 위해 기승을 부리였다.

민주와 정의를 교살하기 위해 피눈이 되여 날뛰던 이런자가 우두머리자리에 앉아있으니 《자한당》이 하는짓모두가 다를바없다.

2019년 2월 남조선《국회》에서는 《자한당》의 주최하에 《5.18진상규명대국민공청회》라는것이 열리였다.

여기에 출연한 리종명, 김순례와 같은 《자한당》소속 《국회》의원이라는자들은 《5.18폭동에 북군이 개입했다.》, 《1980년대당시 5.18사태는 폭동이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되고있다.》, 《종북좌파들이 판을 치면서 5.18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을 만들어내며 우리 세금을 축내고있다.》고 악에 받쳐 고아댔다.

광주인민봉기렬사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 아닐수 없다.

광주시와 그 주변의 각계각층 주민들 100여만명이 참가한 광주인민봉기는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서 억압자들이 강요하

는 낡은 《유신》파쑈통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주정치를 실시하기 위한 가장 높은 형태의 반파쑈민주화투쟁이였으며 전제정치를 반대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동방인민들의 근대투쟁력사에서 처음으로 되는 가장 크고 격렬한 대중적봉기였다. 광주인민들의 이러한 투쟁을 계엄군을 내몰아 류혈적으로 탄압한것이 바로 《자한당》의 조상인 전두환군사깡패도당이였다.

전두환군사깡패도당은 광주인민봉기진압을 위해 수많은 땅크와 장갑차, 직승기, 수만명의 방대한 정규무력을 투입하였으며 대구경포사격과 전쟁력사에서도 전례드문 질식가스탄사격을 감행하면서 봉기참가자들을 야수적으로 학살하였다.

바로 이런 살인마들의 후예인 《자한당》패거리들이 광주인민들에게 천만번 석고대죄해도 부족할 판에 광주인민봉기를 《폭동》으로, 그 참가자와 유가족들을 《괴물집단》으로 모독하다 못해 봉기를 진압한 전두환역도를 《영웅》으로 치켜세우기까지 한것은 남조선인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였다.

남조선의 여러 정당, 단체 인사들과 5.18력사외곡대책위원회, 5.18구속부상자회 등 광주지역 단체들, 각계층 시민들은 《자한당》패거리들이 벌려놓은 이른바 《공청회》를 《진실과 정의를 모독한 용서할수 없는 만행》, 《국정롱단세력의 망동》이라고 단죄규탄하면서 망언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자한당》이 공식 사죄할것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섰다.

서울에서는 광주학살만행의 진상규명과 전두환역도의 법정출석, 5.18망언자들의 퇴출과 《자한당》해체를 요구하는 기

자회견과 초불집회가 세차게 벌어졌다. 특히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에서는 각지에서 모여온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자한당》해체범국민집회가 진행되였다.

사회여론이 이처럼 죽가마끓듯 하자 바빠맞은 《자한당》패거리들은 5.18망언을 한 저들의 패거리들을 《징계》한다 어쩐다 하면서 시일을 끌다가 흐지부지해버리고말았다.

그러고도 낯가죽이 곰발바닥같은 황교안은 그 주제에 광주민심을 사보려고 5.18광주인민봉기 39년 기념행사장에 기생오라비같은 상판대기를 뻔뻔스럽게 들이밀었다. 그자가 행사장에 나타나자 5.18관련단체들을 비롯한 광주시민들은 《<자한당>은 물러가라.》, 《여기가 어디라고 오느냐.》, 《황교안은 전두환이다.》고 웨치면서 역적패당에게 물벼락을 안기고 의자를 던지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자한당》것들은 분노한 각계층에 의해 이리 밀리우고 저리 채우느라 행사장입구에서 기념식장까지 가는데 2분정도면 될 거리를 20여분만에야 겨우 당도하지 않으면 안되였고 행사가 끝난 후에는 도적무리처럼 출입구가 아니라 울타리를 뜯고 달아나지 않으면 안되였다.

광주인민봉기를 총칼로 진압한 군사깡패도당을 《영웅》으로 추켜올리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정의를 위해 떨쳐나섰던 광주인민봉기참가자들과 그 유가족들을 모독하고 릉멸한 《자한당》의 망동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개꼬리 삼년 가도 황모가 못되듯이 파쑈와 독재를 첫째가는 기질로 삼고있는 《자한당》이 있는 한 언제 가도 남조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사회적진보와 정의를 실현할수 없다는 바로 그것이다.

《자한당》의 민주말살책동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2019년 4월 남조선《국회》에서는 《선거제도개편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과 같은 주요개혁법안들을 채택하는 문제가 일정에 올랐다. 이 법안들은 남조선민심의 요구를 일정하게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대다수 남조선인민들은 법안들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킬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자한당》패거리들은 《선거제도개편안》이 통과되면 저들이 다음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의석수를 확보하는데 불리하게 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의 채택으로 저들의 비리와 부정부패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것을 《우려》하면서 이 법안채택을 결사반대하였다.

4월말에 이르러 《자한당》떨거지들은 주요개혁법안들의 신속처리안건지정(패스트트랙)을 가로막기 위해 《국회》에서 보기조차 역겨운 란동을 련일 부리였다.

여야4당이 신속처리안건지정과 관련한 합의문을 마련하고 안건지정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자 원내대표 라경원을 우두머리로 하는 수십명의 《자한당》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회의장앞에 드러누워 회의를 시작할수 없게 방해를 놀았다. 뿐만아니라 신속처리안건지정을 반대하기 위해 몸싸움까지 벌리다 못해 나중에는 쇠지레대와 망치까지 들고나왔다.

며칠동안 벌어진 《자한당》과 다른 여야당사이의 란투극에 대해 남조선언론들과 각계층은 《동물국회가 또다시 펼쳐

졌다.》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 저들의 리익과 리해관계실현을 위해 이른바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하는 《국회》에서까지 란동을 부리는 《자한당》이야말로 민주와 진보의 첫째가는 걸림돌이라는것이 그 사건을 통해 만천하에 다시금 드러났다.

사건의 진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한당》은 《국회선진화법》위반혐의로 《국회》란동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의 소환조사에 뻗치고 응하지 않았다.

《자한당》의 조상들이 만들어놓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국회》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7년의 징역형과 벌금,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되여있다고 한다.

추악한 목적실현을 위해서는 법 같은것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정치불한당, 정치깡패들이 《국회》의원감투를 버젓이 쓰고 《민주주의》를 줴치는것이야말로 참으로 꼴불견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경찰소환조사불응으로도 부족하여 원내대표 라경원은 《패스트트랙관련 수사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가산점을 주겠다.》고 로골적으로 떠들고 황교안까지 나서서 《당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분들에 대해 상응하는 평가를 하는것은 마땅하다.》고 횡설수설하면서 갖은 추태를 다 부리였다.

신속처리안건들이 《국회》에서 정식 통과되게 되자 《자한당》의 깡패짓은 극도에 달했다. 2019년 12월 《선거제도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의 통과를 반대하여

《자한당》은 수백명의 보수우익깡패들을 내몰아 《국회》청사앞에서 이른바 《규탄대회》를 열고 별의별 망동을 다 부리였다. 황교안이 앞장서서 《자유민주주의수호》를 부르짖으며 란동을 선동하자 여기에 《고무》된 깡패무리들은 정문을 뚫고들어와 《국회》청사를 포위하고 여당과 다른 야당의 의원들과 관계자들에게 물리적폭행까지 감행하였다.

그 꼴이 얼마나 볼썽사나웠으면 여야당은 물론 보수세력내부와 보수언론들속에서까지 《이게 보수의 품격이냐.》, 《정치깡패짓》, 《무법천지》라는 비난이 터져나왔겠는가.

바로 이러한자들이기에 2019년 하반기에는 일개 법무부 장관임명을 결사반대하여 여러달동안이나 별의별 추태를 다 부리였다.

남조선검찰은 지난 기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회적모순과 불평등을 심화시켜온 장본인이다. 특히 《자한당》의 전신들이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은 시기에 남조선검찰은 사회의 진보와 민주주의실현,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정치세력과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여 《권력의 시녀》, 《정치검찰》이라는 수치스러운 오명을 받아안았다.

그러기에 최근 남조선에서는 검찰개혁이 초미의 사회적과제로 떠올랐으며 그 집행을 위해 2019년 9월 법무부 장관이 새로 임명되였다.

지난 시기 검찰을 리용하여 사회적진보와 민주화실현, 통일운동을 악랄하게 가로막아온 《자한당》패거리들은 검찰개혁

으로 인하여 검찰과 저들사이의 더러운 유착관계가 끊어지고 저들의 부정부패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날가봐 법무부 장관임명반대를 구실로 말그대로 최후발악을 다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기 전부터 당대표 황교안을 비롯한 어중이떠중이들이 나서서 삭발을 한다 어쩐다 하면서 분주탕을 피워댔는가 하면 《법치주의와 정의의 사망》이라고 떠들면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제출, 《국정조사》에 대해 운운했다.

2017년 3월 박근혜가 초불민심의 심판을 받고 탄핵되자 《국민에게 탄핵되였다.》, 《응징이라고 생각한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노죽을 부리던 《자한당》것들이 불과 2년이 지나자 때를 만난듯이 기가 살아 《좌파독재타도》, 《정권심판》을 부르짖으며 보수재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광한것이다.

《자한당》패거리들은 온갖 보수떨거지들을 긁어모아 광화문광장에서 그 무슨 하야를 요구하는 《범국민투쟁대회》를 여러차례나 벌려놓았다. 이 대회장의 무대에 오른 황교안, 라경원과 같은 《자한당》우두머리들은 《현 <정권>은 좌파폭정<정권>》, 《단군이래 최악의 <정권>》이라고 매도하면서 《<정권>을 심판할 때까지 모든것을 걸고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객기를 부렸다. 심지어 원내대표 라경원은 온갖 폭력과 무질서가 판을 친 보수떨거지들의 이 집회를 《10월항쟁》이라고 괴여올리였다.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비참한 운명으로 줄달음쳐가

는 《자한당》의 최후발악을 어떻게 감히 항쟁에 비할수 있는가.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은 보수적폐세력의 이러한 준동에 맞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에서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대규모초불시위투쟁을 벌리였다. 2019년 9월과 10월에 여러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투쟁에는 수백만명에 달하는 남조선인민들이 참가하여 서초구일대를 초불의 바다로 만들었다.

시위투쟁참가자들은 《검찰이 개혁에 저항한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더 크게 초불을 들것이다.》, 《적폐세력을 청산할 때까지 초불을 내리우지 않을것이다.》고 하면서 《자한당》과 그와 유착된 적폐세력들을 기어이 청산할 의지를 가다듬었다.

력사의 엄정한 판결속에 한점 빛마저 두려워 쥐굴에 처박았던 머리를 자그마한 수치심도 없이 빳빳이 쳐들고 력사퇴행의 회오리를 일으켜대고있는 적폐무리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정의를 절대로 실현할수 없다.

5. 끝모르는 권력야욕, 재집권의 개꿈

자본주의정치계에서 치부의 수단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권모술수를 쓰며 서로 물고뜯는 행위들은 례사로운것으로 되고있다.

권력쟁탈을 위해 호상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정치적테로도 서슴지 않고있는것이 남조선보수정치계의 일반적인 행태이다.

시정배들이 넘쳐나는 썩은 정치의 오물장, 권력쟁탈을 위한 파벌싸움으로 악명높은 오합지졸이 바로 보수정치의 본당—《자한당》이다.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과 파쟁만을 일삼고 니전투구로 세월을 보내고있는 이런 미치광이무리들이 정당이라 자처하며 정치판을 휘두른것은 남조선정치의 수치스러운 진면모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파벌을 형성해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배척하며 주도권쟁탈을 위해 싸우는것은 보수패거리들이 《국부》로 우상화하는 리승만의 《자유당》시절부터 형성된 악습이다.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하여 수없이 많은 변신을 반복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이어져온 전통이 권력의 밥그릇을 차지하기 위한 계파싸움이며 이것이 보수정치세력의 체질로 굳어지고말았다는것은 이미 언급한바이다.

그 무슨 철학이나 정치적신조가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권력과 부귀영달을 위해 모인 시정배들의 집단인 《자한당》이 세상에 더러운 모습을 드러낸 때로부터 밥먹듯 해온것이 개싸움질과 정치보복놀음이다. 리기적목적, 불순한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제 부모처자를 버리는것도 서슴지 않는 《자한당》무리들이 새 벙거지를 뒤집어쓴지 3년동안에 기록할수 있는 《업적》이 바로 끌모르는 권력야욕과 재집권의 개꿈을 위한 파벌싸움이다.

한때 《자한당》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던 전원책이 계파싸움의 희생물로 쫓겨나면서 《<자유한국당>은 정파가 아닌 계파가 있는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일종의 사조직이다.》라고 환멸을 토로한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남을 물어메쳐야 내가 살아남는다.》, 《승진도약의 비결은 돈뿌리기와 폭군기질을 소유하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한당》내에서 공인된 이른바 생존전략이다.

2017년 3월 친박계가 《헌법재판소》의 박근혜탄핵결정에 불복해나서자 박근혜의 수모를 받으며 지내온 비박계는 기회를 만난듯이 《당헌, 당규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 《당이 살자면 박근혜를 지워버려야 한다.》고 맞받아치며 친박패권주의의 청산을 요구하였다.

이를 기화로 하여 비박계와 친박계사이의 란투극은 극도에 달하였다.

2017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패한 후 친박과 비박, 홍준표파와 당지도부 등 4개의 파로 갈

라진 역적당패거리들은 저마끔 책임을 떠넘기며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일삼았다.

비박계것들은 선거에서의 패배를 《력대 최대의 보수참패》, 《보수의 궤멸》이라고 평하면서 친박이 죽음의 구뎅이를 파놓았다, 몽둥이로 대갈통을 박살내야 한다고 친박계를 몰아대는 한편 당지도부와 홍준표에 대해서도 선거에서 2위를 한것을 성과로 보는것은 오산이다, 반성부터 하라고 하면서 악청을 돋구었다.

홍준표패거리는 박근혜탄핵과 《대통령》선거때에 바퀴벌레처럼 숨어있던것들이 슬금슬금 기여나와 당권을 잡아보려고 설쳐댄다고 하면서 친박계를 몰아대고 당지도부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고 당지도부것들은 그들대로 패자가 당권에 도전하는것은 렴치없는짓이다, 친박이 당권을 잡으면 망한다고 아부재기를 치면서 홍준표파와 친박계를 견제해보려고 급급해하였다.

2018년 6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참패를 당한것을 기화로 《자한당》은 또다시 친박계와 김무성파(복당파), 중립파, 중진의원파, 초선 및 재선의원파 등으로 사분오렬되였다.

당안의 각 파벌들사이에 《당의 로선문제》, 《새로운 보수정당을 내오는 문제》, 《당지도부선거문제》 등을 놓고 서로 주도권을 쟁탈하기 위해 물고뜯는 파벌싸움은 더욱 치렬해졌다.

이미전부터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동조한 비박계의 처사에 대해 이를 갈고있던 친박잔당들은 2018년 11월 중순

《자한당》내부가 당권문제 등을 둘러싸고 복잡해지자 《비박계가 <대통령>을 탄핵시켜 당원들을 불구뎅이에 밀어넣고 당지지자들을 도탄에 빠뜨렸다.》, 《<정권>을 빼앗긴 원흉들이다.》, 《당장 축출해야 한다.》고 고아댔으며 《우파재건회의》라는 것을 통해 당지도부를 총사퇴시키며 조기전당대회를 열어 당권을 잡을 음모를 꾸미였다. 이에 발맞추어 비상대책위원회 것들도 《당안에 들어온 위장보수들이 친박청산을 명분으로 당의 리념을 바꾸려고 꾀하고있다.》, 《당의 뿌리를 부정하는 세력들을 용서할수가 없다.》고 줴쳐대면서 《태극기부대》와 같은 불망나니들을 대대적으로 당에 받아들이여 몸집불구기에 광분하였다.

2019년 2월에 진행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쟁탈을 위한 계파갈등은 더욱 우심해졌다. 그것은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당대표가 2020년 《국회》의원총선거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때문이다.

친박근혜파와 비박근혜파는 당대표에 자파인물이 당선되지 못하면 2008년과 2012년 《국회》의원총선거때처럼 저들이 《국회》의원후보추천에서 제외당하는 《공천학살》대상이 되여 계파가 소멸될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자파인물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분주탕을 피웠다.

인물난에 허덕이는 역적당내에서 홍준표, 황교안, 오세훈, 김진태, 김무성 등을 우두머리로 한 각양각색의 파벌들이 저저마다 당권을 잡기 위해 상대를 물어뜯는 개싸움에 여념이 없어 《자한당》은 그야말로 피터지는 란투장을 방불케

하였다.

전당대회이후 황교안의 당대표선출은 《자한당》내의 계파싸움을 더욱 야기시키였다. 황교안이 대표자리에 올라앉은 《자한당》은 2019년 온 한해동안 계파싸움의 불도가니로 되고말았다.

대표자리에 올라앉은 황교안은 《당혁신》의 미명하에 《인재영입》과 《보수대통합》문제를 집요하게 들고나왔다.

황교안은 기회만 있으면 《자유우파는 함께 해야 한다.》고 피대를 돋구고 《보수대통합》을 떠들어대면서 《1차영입대상》을 발표하고 류승민패와의 《합작》도 꾀하였다.

이런 속에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였던 류승민이 황교안에게 《박근혜탄핵인정》 등의 《통합조건》이라는것을 내들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에야 《자한당》내 친박계의 기분을 잡쳐놓았다. 친박계가 박근혜탄핵결정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한 류승민을 《배신자》, 《제2의 유다》라고 몰아붙이며 그와의 《통합》을 결사반대해나섰던것이다.

불똥은 당내 비박계를 향해서도 튕기였다. 친박계는 《박근혜탄핵에 찬성한 세력들이 반성하고 석고대죄하지 않는 한 같이 있을수 없다.》고 앙앙불락하면서 그들의 출당을 요구해나섰다.

이에 발끈한 비박계가 《탄핵찬성이 민심이다.》, 《박근혜탄핵의 강을 건너야 한다.》고 맞받아 고아대면서 친박계의 출당요구를 묵살해버리였다. 하기야 박근혜의 탄핵당시

적폐대상이 되여 숨도 제대로 못 쉬던 친박계가 때를 만난듯이 황교안을 등에 업고 제노라 하고 판을 치며 비박계를 이붓자식대하듯 하고있으니 어찌 분통이 치밀어오르지 않겠는가.

공천문제와 《당혁신》문제를 놓고 치렬해졌던 《자한당》의 권력쟁탈을 위한 내부계파싸움은 2020년초에 극도에 이르렀다.

2020년 《총선》출마지역을 놓고 초선, 재선의원들과 중진의원들사이에 《네가 험지에 나가라.》며 련일 설전이 벌어지는가 하면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류승민패와의 《통합》문제에서 친박계는 《배신의 전형》이라고 공격하고 비박계는 《탄핵인정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하는 등 날선 공방이 계속되였다.

《총선》에서 살아남아 어떻게 하나 저들의 권력야욕을 실현해보려는 《자한당》것들의 권모술수와 보수세력내에서의 계파간 갈등과 대립은 날이 갈수록 대중의 멸시와 환멸만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시기 《자한당》내에서의 계파싸움이 비일비재했지만 공천문제와 《당혁신》문제를 놓고 벌어지는 치렬한 《밥그릇쟁탈전》은 참으로 가관이였다.

그 《밥그릇쟁탈전》을 부추긴자가 다름아닌 《자한당》의 대표로 있다가 《미래통합당》의 대표감투까지 뒤집어쓴 황교안이다.

원래 공천문제는 당대표의 권한에 속하는것이라고 할수

있다.

친박계와 비박계사이에서, 초선과 재선, 중진의원들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을 기여오는 과정에 재미를 톡톡히 본 황교안의 관심사는 오직 당내에 친황패거리들을 더 많이 만들고 당선시켜 다음기 《대선》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있다.

그러자면 친박과 비박을 비롯한 다른 계파들을 밀어내야 할텐데 현 상태에서 그것은 황교안에게 있어서 힘에 부치는 일이 아닐수 없다.

이로부터 황교안은 아직은 좀더 지켜보면서 저들끼리 물고 뜯고 싸우라고 하자, 그러다가 맥이 진하면 아무래도 대표인 내 얼굴을 쳐다볼것이 아닌가, 그때에 가서 측근들을 내세우면 그만이라고 타산하고있는것이다.

결국 《자한당》안의 각 계파들은 황교안의 이러한 수에 놀아난다고 할수 있다.

황교안은 보수세력의 몰락을 막기 위해 《보수대통합》을 부르짖으며 당내 친리명박패들을 내세우는 한편 친박계를 얼려보려고 《박근혜석방론》을 내들고있다.

새해벽두부터 황교안은 쩍하면 《신년인사회》, 《기자간담회》 같은것을 련이어 벌려놓고 《모든 자유우파세력들이 다 <통합>해야 한다.》, 《<통합>만이 살길이다.》고 떠들어대면서 《바른미래당》을 뛰쳐나와 《새로운 보수당》이라는것을 조작해낸 류승민패거리들에게 《통합》이니, 《련대》니 하며 추파를 던져댔다.

보수패거리들은 2020년 1월 서울에서 제2차 《정당, 시민단체 대표자련석회의》를 열고 《보수대통합》을 위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라는것을 발족시키였다. 보수야당들인 《자한당》과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4.0》과 보수정치단체들인 《플랫폼 자유와 공화》, 《국민통합련대》가 참가한 회의에서는 《플랫폼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 박형준을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2월 10일전으로 보수통합신당을 창당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혁신과 통합》, 《공정과 정의추구》, 《문재인<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의 대통합》, 《청년들의 마음을 담을수 있는 통합추구》, 《박근혜탄핵문제라는 장애물제거》, 《대통합정신을 담은 새로운 정당의 창당》을 《보수대통합을 위한 6가지 원칙》으로 정하였다.

여기에 울컥 부아가 치밀어난 당내의 친박근혜파들은 당대표가 박근혜탄핵에 대해 사죄도 하지 않는 《새로운 보수당》패들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면 탈당하여 새로운 당을 만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우리공화당》것들도 《배신의 무리》와는 함께 갈수 없다고 하면서 황교안의 《보수대통합》에 로골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독자적인 신당창당에 돌입하고있는 전 《새누리당》 대표 리정현은 통합대신 보수와 진보를 뛰여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통합론의자체를 거부해나섰다. 또 안철수패들은 정치세력들의 《기득권》유지를 위한 《리합집산》에는 관심이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라는것자체가 거짓과 기만, 배신과 변절을 밥먹듯 해온 인간추물, 정치철새, 너절한 시정배들의 거대한 시궁창이 아닐수 없다.

그런데도 황교안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까지도 당내 리명박파인물을 올려앉히고 저들을 공천에서까지 배제하려고 시도하여 친박세력과 극우보수패거리들의 부아통을 더 돋구어놓았다.

《자한당》내에서 친박세력들은 박근혜탄핵문제를 내들면서 당대표 황교안이 추진하는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놀음에 반대하였는가 하면 당선가능성이 높은 현역의원들은 《당혁신》문제를 놓고 《황교안당》을 만들겠다는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였다.

한때는 친박을 등에 업고 당대표자리를 따냈다면 이제는 자파세력을 확장하여 당을 자기 수중에 완전히 장악한 다음 다음기 《대통령》후보도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것이 황교안의 교활한 흉심이다. 이자에게는 친박계와 비박계간의 싸움으로 어부지리를 얻고 권력야욕만 실현하면 그만이라는 흉심밖에 없는것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어느 한 언론은 《권력의 단맛만 만끽하고 그 권력이 빚었던 수없는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수 없다는 무책임의 표본이 버젓이 고개를 들수 있는 정치풍토속에 참다운 정치란 뿌리를 내리기 힘들다.》고 하면서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것이라고 하는데 <자한당>의 정

치는 국민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게 하고있다.》고 신랄하게 폭로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자한당>의 집안싸움은 정상사람의 사고를 가지고는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이다.》, 《흉언과 독설로 존재감을 찾는 막말깡패당이 <국회>를 싸다니는것 자체가 수치이고 망신》이라는 야유조소가 그칠새없이 터져나오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경제와 민생은 전혀 안중에 없이 정치적인기를 위해 상대방을 험악하게 헐뜯는데서 쾌락을 느끼는 정신이상자들, 거짓과 허위, 모략과 날조를 다해서라도 권력만 쥐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정치간상배들, 권력이라는 비계덩이를 물기 위해 간에 붙었다, 쉽에 붙었다 하는 정치철새들이 모인 소굴이 《자한당》이며 권력야욕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한집안에서도 피터지는 계파싸움을 일삼는 추악한 시정배, 인간쓰레기들이 바로 《자한당》패거리들이라는것은 더 론할 필요가 없다.

초록은 동색이라고 다른 보수야당들속에서도 당권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서로서로 삿대질을 하며 앙앙불락해대고 각계파로 갈라져 욕설을 퍼붓고있다.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이러한 추태는 마치도 썩은 고기를 저마끔 차지하겠다고 으르렁거리는 굶주린 개들을 방불케 하였다.

더우기 소란스러운 집안싸움으로 제 몸건사도 바로하지 못하는 주제에 다른 패당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통합》을 떠드는 황교안의 꼬락서니는 참 가소롭기 짝이 없었다.

물에 빠진자 지푸래기라도 잡는다고 풍전등화의 신세가 된 남조선의 《자한당》시정배들이 희한한 정치만화를 또다시 연출하여 만사람의 조소와 분노를 자아냈다.

얼마전 《자한당》이 시, 도당 당사들에서 《미래》라고 락서한 종이장으로 《자유한국당》간판의 앞의 두 글자를 척 가리우고는 《미래한국당》조작을 위한 지역당들을 번개불에 콩 닦아먹듯이 만든것이다.

권모술수, 부정부패에 쩌든 파렴치한들에게 걸맞는 눈감고 아웅하는 격의 뻔뻔스러운 행태에 누구라 없이 침을 뱉았다.

한쪼박의 휴지로 당명이 다르게 보이도록 술수를 부리고 순식간에 부랴부랴 만들어낸것들을 그 무슨 《정당》의 지역당들이라고 믿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위성정당을 한시바삐 만들어내기 위해 《자한당》이 허겁지겁 벌려놓는 유치한 놀음들이 《준련동형비례대표제》를 악용하여 4월 《총선》에서 비례의석을 확보하고 기어이 부활하여 재집권야망을 실현해보려는 흉심에서 출발한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온갖 오그랑수로 초불민심이 요구한 《선거제도개혁》에 도전해나서는 《자한당》의 망동을 보며 적폐무리를 기어이 심판하려는 각계층의 징벌의지는 더욱 강렬해지였다.

결국 부질없는 놀음으로 그러지 않아도 가물거리는 목숨을 더욱 위태하게 만들고있으니 만사람이 《자한당》패거리들을 가련한 정치속물, 제명을 다 산 력사의 오물들이라고 조소하고있는것은 응당하지 않겠는가.

《미래》라는 가랑잎으로는 민심의 저주를 받는 《자한당》의 흉물스러운 몸뚱아리를 결코 가리울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민심에 도전해나서는 역적무리의 암울한 미래를 보여줄뿐이다.

《자한당》패거리들이 추악한 《리합집산》놀음으로 민심을 기만하고 불리한 형세를 되돌려보려고 아무리 잔꾀를 부렸지만 파산의 운명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었다.

6. 부정부패, 패륜패덕의 대명사

도덕적위선은 《자한당》의 본성이며 도덕적부패는 《자한당》의 필연적산물이다.

2019년 12월 16일 11시.

남조선의 《국회》앞에서는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폭력사태가 일어났다. 그 란동의 조직자는 《자한당》이였다.

《자한당》은 《국회》앞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선거법날치기저지규탄대회》라는것을 벌려놓은데 이어 집회에 참가한 《자유우파총련합》을 비롯한 20여개의 악질극우보수단체 패거리들을 동원하여 《국회》청사를 점거하는데로 내몰았다.

그러면 《자한당》이 왜 그토록 이를 악물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를 반대하는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저지를수 있는 각종 범죄류형들을 모두 수사대상으로 할수 있으며 과거 권력형부정부패사건에 대해서는 범죄시효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재수사를 할수 있다고 한다.

《자한당》이 온몸을 던져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를 반대하는 리유는 그들이 고위공직자부패비리의 진짜 주범이며 썩은 내 나는 온상이기때문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되는 경우 제일먼저 법정에 서야 할 죄인들은 다름아닌 《자한당》패거리들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극단한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죠아도덕에 오염된 사고방식과 관점에 물든 사람들은 개인의 리익을 사회와 집단의 리익보다 우위에 놓고 남이 싫어하건말건, 남에게 해가 되든말든 상관하지 않고 제 리속만 챙기려 한다.

이러한 사고관점에 찌들대로 찌든 《자한당》패거리들은 외세에 대한 맹목적인 사대와 아부굴종으로 남조선사회 모든 분야의 특권적지위를 차지하고있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향락과 치부를 향유해왔다.

그러한 《자한당》패거리들이 《국회》앞 광장에서 란동을 부리다 못해 《국회》청사를 점거하며 사람들을 경악케 하는 깡패짓까지 해댄것은 너무나도 뻔뻔스럽고 철면피한 행동이 아닐수 없다.

《자한당》패거리들의 부정부패행적에서 가장 문제시되는것은 권력형부정비리이다.

《자한당》은 권세와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온갖 불법과 무법, 부정부패를 밥먹듯 하는 너절한 정치추물, 돈벌레들의 집합체이다.

《차떼기당》, 《부패원조당》, 《도적당》, 《성추행당》 등의 별명들은 다 지난 기간 《자한당》의 조상들이 저지른 패륜패덕과 부정부패행위로 스스로 얻어가진것들이다.

남조선에서는 리승만《정권》때로부터 박정희, 전두환, 로태우, 김영삼《정권》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사건으로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으며 전대미문의 특대권력형부정부패사건이 꼬리를 물고 련속 터져나와 내외를 경악시켰다.

리승만《정권》의 중석불사건과 국방부원면사건. 《유신》독재자의 사카린밀수사건과 비료부정수입사건, 전두환의 리철희, 장령자부부어음사기사건과 《새마을운동》부패사건, 로태우의 수서특혜분양사건, 김영삼의 한보특혜부패사건과 김현철부정부패사건, 《한나라당》의 안기부예산횡령사건(안풍)과 《국세청》사건(세풍) 등 보수패당이 저지른 불법행위와 부정부패범죄는 그 가지수와 종류에 있어서 셀수 없을 정도이다.

반역당의 력사는 불법무법, 부정부패로 얼룩져있으며 이것은 리승만의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하여 《자한당》에 이르기까지 보수패당이 대대로 물려주고 이어받아온 유전적기질이다.

말그대로 온갖 부정부패오물의 특대전시장이 《자한당》의 진짜얼굴이다.

그러니 《자한당》의 당대표로 올라앉은자들의 뒤생활이 깨끗할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도적의 무리는 두목도 도적이고 그 졸개들도 도적이기때문이다.

《자한당》 전 대표였던 홍준표는 리명박집권시기 특대형정치자금상납사건인 성완종사건의 주요인물로서 당시 남조선에서는 홍준표를 《명박도》로 가는 《배표》로 야유한 유모아가 널리 류행되였었다.

그후에 당대표직에 올라앉은 황교안 역시 권력형부정비리의혹의 집합체이다.

황교안이 1999년 검사노릇을 할 때 삼성비밀자금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삼성측으로부터 거액의 뢰물을 받았다는것

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다.

황교안은 고위공직자로서 청렴은 고사하고 지위를 리용해 각종 리권을 챙기는데 몰두한자이다.

이렇게 이른바 《당》수장이라고 하는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은 물론 《고참》, 《신참》에 이르기까지 《자한당》의 일원이라면 어느 하나도 권력형부정부패범죄에 련루되지 않은자가 없다.

《민원해결》을 한답시고 몇개의 업체들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받아먹고 수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걷어들여 부정지출한 혐의로 8년형의 징역형을 받은 《국회》의원도 있고 자기의 친형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교가 《정부》보조금을 받도록 예산편성을 유도한자도 있으며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 앞도로 개선에 《정부》예산 7억원을 사용하도록 한 《국회》의원도 있다. 이밖에도 시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공천대상자를 심사하는 위치에서 자기 이복동생을 공천해 비난을 받기도 하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도용하여 부동산투기행위 등으로 사리사욕을 채우다가 덜미를 잡힌자도 있다.

2019년 6월과 7월기간에만도 《자한당》소속 《국회》의원 3명이 《국정원》특수활동비와 불법정치자금횡령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하였으며 8명의 의원들이 여러가지 범죄혐의로 재판받았다. 《자한당》안에는 이런 권력형부정부패범죄자, 날도적들이 수두룩하다.

《자한당》것들의 권력형부정부패행위에서 주목되는것은 자식들에 대한 특혜, 부정입학, 채용비리 등이다.

《자한당》비리사건을 보면 채용청탁이 많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되고있는 남조선사회에서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지위를 리용해 일가족속들에게 특혜를 주는데만 골몰한자들이 《자한당》패거리들이다.

《한국통신》에 특혜채용된 딸문제로 《자한당》 전 원내대표였던 김성태가 재판에 기소되였는가 하면 같은 회사에 특혜채용된 황교안의 아들도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자한당》소속 의원들중에 《강원랜드채용비리》에 련루되여 재판을 받은자도 있고 《신한은행》에 불법채용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자도 있다.

한때 원내대표직을 차지하고있었던 라경원 역시 사학재단관련의혹이 많은 녀자이다. 라경원의 아버지가 리사장으로 있던 홍신학원산하 학교인 화곡중학교와 화곡고등학교에서 비리문제가 심각했는데 급식비나 《정부》지원금을 빼돌리는 정도를 뛰여넘어 학교 학생들을 재단소속의 다른 학교 건물건축에 동원하여 로동을 시키기까지 하였다. 자기 딸을 성신녀자대학교에 특례입학시키기도 하였으며 동창생교수의 론문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실습생인 자기 아들을 제1저자로 등재하도록 청탁한 사실도 있다.

장제원의 아들음주운전사건은 2019년 9월 장제원의 아들이 음주운전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자 운전자바꿔치기를 시도하다가 들장난 사건이다.

일반사람들은 감히 살 엄두도 못 낼 정도로 값이 엄청나게 비싼 승용차를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마구 몰아대던 장제원

의 아들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그런데 가관은 아들이란자가 사고가 발생하자 누구에게 전화질을 해댔는지 몇분도 안되여 제 죽을줄도 모르는 얼간둥이가 나타나 《내가 차를 몰았다.》며 거짓자백하는 서툰 연기가 벌어졌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아량있게 눈을 감아달라.》며 묵돈까지 건네주었다고 한다.

남이야 어떻게 되든 저부터 살고보자고 마구 헤덥비는 아들녀석의 행태는 신통히 제 애비를 빼닮았다 하지 않을수 없다.

이처럼 역적당것들의 자식들은 누구나 온갖 불법, 비법의 특혜를 누려왔다.

권력을 등대고 저들은 물론 제 일가족속들의 부정부패행위까지 거리낌없이 조장해온 《자한당》패거리들이야말로 인민들의 불행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제 돈주머니를 불구는데 눈이 벌개 돌아친 도적패당, 근로대중을 개, 돼지로 취급하며 전횡과 독단을 일삼고 남조선정치판을 구린내나는 권력형부정부패범죄의 란무장으로 전락시킨 썩은 정치의 패거리들이다.

썩은 물에는 싸그쟁이만 성하기마련이라고 악취풍기는 부정부패오물의 일등가는 집결처인 《자한당》이라는 시궁창에서 인간의 초보적인 륜리도 지키지 않는 호색한, 변태성욕자들이 득실거리는것은 초보적인 리치이다.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호색과 방탕을 타고난 본성으로, 악습으로 하고있는 《자한당》패거리들의 추악한 행적들은 《자한당》에 대한 환멸을 자아냈다.

알려진바와 같이 김학의성접대사건은 지난 2007년당시 춘

천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있던 김학의가 한 녀성에게 마약을 강제로 투입하고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성추문사건으로서 그가 2013년 박근혜《정부》의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면서 터져나와 사회적물의를 일으킨 사건이다.

이뿐이 아니다.

2019년초 《자한당》소속 의원 최교일이 2016년 미국행각시 《스트립 바》(라체춤을 봉사하는 술집)에 출입하여 추태를 부린 사실이 폭로되여 《자한당》은 《색정당》, 《성희롱당》, 《성추행당》의 악명을 떨치였다.

미국에서 사는 어느 한 관광안내자가 미국방송에 출연하여 당시 뉴욕에 왔던 최교일이 안내를 맡은 자기에게 《스트립 바》에 가보자고 요구하였다는것, 자기는 그의 강박에 못이겨 최교일을 그곳으로 안내하였다는것, 최교일은 시간가는줄도 모르고 거기서 라체춤을 추는 녀자들에게 팁까지 주어가며 놀음에 정신을 쏟아부었다는것 등을 낱낱이 폭로하였다.

듣기에도 구토감을 자아내는 자기의 더러운 행적이 사회 각계에 폭로되자마자 최교일이 《내가 먼저 <스트립 바>에 가자고 한적이 없다.》, 《이것은 야당의원을 음해하기 위한것》이라는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해명놀음까지 벌렸지만 각계층의 비난과 규탄은 더욱 비발치였다.

각계층 인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과 인터네트에 《국민혈세로 미국에 출장가서 라체춤을 구경한 최교일은 <국회>의원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런자를 의원으로 추천하고도 적폐청산을 방해하고있다.》, 《최교일을 당

장 의원직에서 사퇴시키자.》 등의 글들을 무수히 올리며 격분을 터뜨리였다.

하지만 날적부터 부화방탕을 체질화한 《자한당》의 색마들은 오히려 《남자가 좀 그럴수 있지 뭘 그러나.》, 《<스트립바>에 가서 자기 돈을 내고 술 한잔을 한것이 무엇이 잘못되였는가.》, 《의원들이 이 정도도 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면서 제 족속의 추잡한 행적을 《당연》한것이라고 비호두둔하면서 구정물같은 악담을 마구 토해냈다.

하는짓이란 온통 인간륜리를 어지럽히는 추악하고 께끈한 반인륜적행위뿐이고 그로 하여 《색정당》, 《성추행당》으로 이미 락인된 《자한당》안에서의 이러한 추행은 부지기수이다.

2019년 6월에 《자한당》이 펼쳐놓은 《엉덩이춤》은 온 남조선땅을 들었다놓았다.

환각제를 먹은듯 한 5명의 녀성들이 무대앞에 나서서 객석을 향해 엉덩이를 돌려대고 서슴없이 바지를 벗고는 속옷에 《한》, 《국》, 《당》, 《승》, 《리》라는 글자를 새긴 엉덩이들을 마구 흔들어대며 귀청을 째는듯 한 소리를 지르고 해괴망측한 춤을 추어댔다.

녀색즐기기라면 맨발 벗고 십리라도 간다는 황교안이 대표의 권한으로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앉아 시종일관 입을 헤벌쭉하게 벌리고 마른침을 꿀꺽꿀꺽 삼키며 추녀들이 놀아대는 변태적인 꼴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물론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주기도 하고 박자에 맞추어 궁둥이를 들썩들썩거리기도 하면서 말이다. 황교안을 따라 《자한당》의 관객들

도 괴상한 소리를 질러대며 궁둥이들을 흔들어댔다.

달리될수 없는 《색정당》, 《성추행당》, 《성범죄당》것들의 더러운 몰골이라 하겠다.

더욱 가관은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이러한 추잡한 광경을 목을 빼들고 바라보며 좋아라 희희덕거린 황교안이 공연이 끝난 후 아쉬움을 금치 못해하며 《오늘 한 <엉덩이춤>을 잊어버리지 말고 좀더 련습을 계속해 멋진 <자유한국당>공연단을 만들어달라.》고 당부까지 하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의 인터네트들에는 《황교안, 마구 흔들어대는 녀자엉덩이 보는걸 매우 좋아해. 저도 막 지랄부리고싶어하는 꼴 좀 봐. 하긴 <색마당>의 대표가 그쯤돼야지.》, 《엉덩이몰골, 바로 그자체가 <자한당>》, 《<자한당>에 이제 새 이름 붙여주겠다. 그 이름은 당당히 <엉덩이당>》이라는 내용의 야유와 조소들이 차넘치였다고 한다.

《자한당》의 썩은 물을 먹으면 온전하던 녀성들도 한순간에 벗기워 추녀가 되고 앞뒤도 분간 못하는 가련한 속물이 되고만다는것이 《엉덩이춤》공연이 보여주는 교훈이다.

그뿐인가. 저들의 더러운 목적추구를 위해 《국회》청사앞에서 꽹과리와 북을 두드리며 소란을 피우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침을 뱉으며 거리낌없이 감행하는 야비한 상욕질과 성추행, 여당의원이건 야당의원이건, 남자이건 녀자이건 가리지 않고 머리끄뎅이를 잡아당기면서 귀통을 갈기고 폭력행위를 말리는 경찰들을 두들겨패는 등 이자들의 망동 하나하나는 정상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것들뿐이다.

수틀리면 미친개 싸다니듯 길거리를 방황하면서 사방에 대고 망탕 짖어대고 아무나 마구 물어뜯던 황교안이 《국회》청사앞에서까지 두팔을 번쩍 쳐들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악청을 돋구어대는 꼴은 저들의 당리당략과 재집권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깡패집단의 폭거, 패륜패덕의 무리 《자한당》의 자화상이다.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자한당>의 부정비리가 터져나올 때마다 정말 신물이 난다.》, 《<자한당>족속들의 뒤가 얼마나 께끈한가. 그런데도 계속 똥 묻은 개 겨 묻은 개 흉보는 격으로 남만 걸고들고있다. 렴치없는 일》이라는 규탄과 조소의 목소리가 계속 터져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지어 《바른미래당》안에서까지 《우리가 <한국당>에서 떨어져나온 리유의 하나도 바로 그래서이다. <한국당>은 원래 썩은 집단이였다.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죽하면 남조선의 한 교수가 《자한당》이 주최한 행사에서 《국민들은 지금 <한국당>을 썩은 물이 가득차있는 물통으로 보고있다. 썩은 물을 버리지 못하면 통자체를 버릴수밖에 없다.》라며 《모든것을 버리지 않으면 국민이 <한국당>을 버릴것》이라고 비판했겠는가.

《자한당》이야말로 부정부패, 패륜패덕이라는 고약한 악취와 고름이 꽉 들어찬 썩은 몸통, 적폐의 온상이며 남조선인민들의 머리우에 군림하면서 남조선사회를 망쳐놓은 주범이였다.

7. 피할수 없는 숙명, 파멸은 《자한당》의 운명

《자한당》은 망한 당.

이것은 《자한당》이 생겨날 때부터 타고난 숙명이였다.

《자한당》이 태여난 2017년에 벌써 남조선의 한 정치학자는 《미래의 <자유한국당>은 몇번의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외면을 받아 소멸되는 운명으로 갈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 말을 증명이나 하듯이 다음해인 2018년 6월 13일 남조선지방자치제선거에서 《자한당》은 여지없는 대참패를 당하였다. 선거결과는 력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보려고 발광하는 역적무리들에게 내려진 분노한 민심의 단호한 징벌이였다.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에서는 오래전부터 경상도를 비롯한 동쪽지역은 보수정당을, 전라도와 경기도, 인천을 비롯한 서쪽지역은 민주정당을 지지하는것이 굳어진 관례처럼 되여왔다. 하지만 2018년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이런 관례와 관념은 허물어졌다.

남조선언론들은 《자한당》이 오래동안 고수하였던 경상도지역에서 변화의 바람이 몰아친다고 하면서 보수의 지지기반이 통채로 흔들리고 뿌리깊은 지역구도가 허물어지는 《정치지진》이 일어났다고 평하였다.

중년층과 로년층까지도 보수패당에 등을 돌려댔다. 지금까

지 남조선에서는 중년층과 로년층의 보수경향이 강한것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박근혜역도의 탄핵을 계기로 많은 중년층과 로년층이 보수정당들에 등을 돌리고 선거에서 민주개혁세력에게 표를 몰아주었다.

무엇때문인가.

남조선에서 항간에 돌아가는 말중에 《꼰대》라는 말이 있다.

자기가 남들우에 있다고 여기며 가르치고 지시하려는 사람들을 가리켜 하는 이 말은 프랑스어로 백작을 뜻하는 콩테라는 말에 어원을 두고있다고 한다. 친일파 리완용이 일제로부터 백작작위를 받고서 너무 기쁜 나머지 거드름을 피우며 《나는 꼰대다.》고 말한데서부터 퍼지기 시작하였는데 그후부터 《꼰대》라는 말은 권위적이고 거드름피우는자들을 념두에 두고 그 의미가 변화되였다고 한다.

남조선에서는 《자한당》패거리들이 하나같이 《꼰대》기질을 타고난자들이라는 목소리가 울리여왔다. 근로대중을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온갖 못된짓을 다한 인간추물들이 차념치는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의 추태에 대해 남조선인민들이 얼마나 환멸을 느꼈으면 《꼰대》라는 말까지 류행되겠는가.

《자한당》떨거지들을 비롯한 보수역적패당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심판의 열기는 조금도 식지 않았으며 단 한순간도 멈춰서본적이 없었다.

주지하듯 지난 2019년 온 한해동안 남조선 곳곳의 광장들은 《자한당》해체를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인 투쟁

으로 활기를 띠였다.

남조선의 한 주민이 《자한당》을 해산시킬것을 바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판에 올린것이 발단이 되여 본격화되기 시작한 반역당해체투쟁은 광주인민봉기 39년을 계기로 더욱 고조되였다.

5.18기념재단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자한당》이 광주인민봉기를 모독한 5.18망언자들을 비호하고 《국회》를 마비시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구성과 《5.18력사외곡처벌법》제정을 가로막은데 대해 격분을 터치면서 각지에서 련일 역적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활동들을 벌리였다.

서울과 광주, 대구와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자한당》해체를 위한 대규모적인 초불집회와 항의시위들이 전개되는 가운데 4.16련대, 서울대학생진보련합을 비롯하여 많은 단체들이 5월에 들어와 매주 토요일마다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자유한국당> 해산! 황교안, 라경원 처벌! 다시, 초불》집회를 열었다. 5월 11일에 열린 초불집회때에는 《자한당》에 해산판결을 내리는 심판식이 진행되고 《<자한당>을 해산하라!》라는 구호밑에 거리행진이 벌어져 각계의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부산에서도 부산대학생진보련합, 부산주권련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5월을 《자한당》해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달로 선포하고 초불의 힘으로 《자한당》해체투쟁을 멈추지 말자고 호소하며 기세를 올렸다.

특히 광주시민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황교안일당이 광주인민봉기기념식에 참가하는것을 견결히 반대하

면서 항의행동들을 벌리였다.

기념식장에 나타났던 황교안역도는 물벼락을 맞았다.

남조선에서 《자한당》심판기운이 얼마나 높은가 하는것은 반역당해산을 요구하여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청원자수가 180만명에 육박한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인터네트홈페지들에도 《다시 초불을 들고 <자한당>을 완전히 해체시키자.》, 《국민을 우롱하는 역겨운 매국노들, 다음해 <총선>에서 박멸하자.》와 같은 반역패당에 대한 증오와 심판의지를 담은 글들이 차넘치였다.

주목되는것은 보수의 《전통지지기반》으로 불리우는 부산에서까지 《자한당》반대투쟁이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벌어진것이다.

이 지역 주민들은 《자한당》것들을 야유, 조소하며 당장 해체해버릴것을 요구하는 오행시짓기대회와 초불집회를 열었으며 황교안, 라경원을 비롯한 역적당패거리들을 쓰레기로 형상하여 조롱하는 놀이도 펼쳐놓았다. 또한 《자한당》해산명령서에 서명하는 운동도 널리 벌어졌는데 주민들은 《위헌정당해산명령》이라고 쓴 용지에 저마다 《범죄집단정당》, 《구시대의 유물정당》, 《망언제조기정당》 등 역적당이 들쓰고있는 각종 오명들을 써놓았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6월 22일 부산에서는 《자한당》해체를 요구하는 부산시민들의 6차 토요초불집회가 열리였으며 집회에서는 《자, 유, 한, 국, 당》 다섯 글자로 오행시짓기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의 재치있는 오행시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참가자들의 현장투표로 선정된 최우수작은 다음과 같다.

《자유당》에서 시작해
《유신헌법》 독재거쳐
《한나라당》 차떼기에
《국가》적망신 《자유한국당》
당장 추방하자!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스스로 만든 화는 피할수 없는 법이다.

《자한당》은 10대의 청소년들에게서까지 조소와 규탄, 저주와 환멸의 대상으로 되였다.

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남조선의 청소년통일선봉대가 《자한당》해체를 요구하는 노래 《<자한당>해체 수자송》을 지었다고 한다.

1부터 10까지의 수자풀이로 되여있는 가사에는 《자한당》을 1초라도 보지 않으면 신이 난다고 하면서 여기저기를 돌아치며 말썽을 부리는 역적당을 누구나 싫어하며 민족의 통일을 방해하지 말고 10초내에 당장 사라질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있다고 한다.

이 노래와 관련한 동영상이 인터네트로 퍼지자 남조선 각계층은 《우리들이 꼭 <자한당>해체해서 너희들 세대에는 그런 놈들이 없는 세상 만들어줄게.》, 《아주 시원하다.》, 《아이들이 원하는건 들어주어야지요.》 등의 글을 올리고

모두가 이 노래를 부르자고 하면서 지지와 격려를 보내였다.

청소년통일선봉대는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된 《2019 자주통일대회》에서 《<자한당>해체 동요-만화주제가련곡》을 불러 또다시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남조선에서 《자한당》이 얼마나 못된짓만 골라했으면 아이들까지 역적당에 등을 돌리고 그 해체를 요구하는 노래를 목청껏 부르고있겠는가.

이뿐이 아니다.

9월에 이르러 남조선에서 검찰개혁과 《자한당》해체를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의 초불집회는 더욱 확대되여 그 수가 무려 200만명을 초월하였다. 이것은 2016년의 박근혜탄핵을 요구하는 광화문초불집회이후 최대규모로 진행된것이였으며 이 초불집회는 서울만이 아니라 광주와 부산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였다.

당시 초불집회가 열리기 며칠전부터 인터네트홈페지에는 《우리 가족이 집회에 참석합니다.》, 《우리 집, 옆집 8명 모두 서초구(초불집회가 진행된 곳)에 갑니다.》 등의 글들이 차넘쳤다고 한다.

초불집회참가자수를 두고 보수패거리들이 이러쿵저러쿵 시비질하자 집회참가자들은 신속하게 참가인증프로그람을 제작하여 개코망신을 주었다고 한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이에 대해 전하면서 《검찰개혁초불집회에 수백만의 인파가 자발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민중이 얼마나 적페청산을 절절히 바라는지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

민심의 심판은 《자한당》것들이 내놓는 그 무슨 정책에 대해 어느 누구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데서도 나타났다.

《자한당》의 대표 황교안이 《국민을 부유하게 만드는 정책》이랍시고 직접 발표한 《민부론》이라는것은 현 당국의 《국가주도형경제정책》을 페기하고 민간주도의 시장경제체제를 되살리며 2030년까지 국민소득은 5만US$, 한 가정당 년간소득은 10만US$, 중산층비률은 70%까지 끌어올린다는것을 골자로 하고있다고 한다.

《자한당》이 《민부론》이라는것을 발표하자마자 민주개혁정당들과 남조선의 각계층속에서는 재벌과 부자를 위한 《1%의 민부론》, 《부익부, 빈익빈의 불평등성장론》, 《대다수 국민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민페론》으로 비난하면서 민심을 기만하는 이자들의 교활한 속심을 까밝혔다. 사실 《민부론》은 본질에 있어서 이미 실패의 쓴맛을 보고 력사의 오물장에 처박힌 리명박, 박근혜《정권》의 반인민적악정과 경제정책을 그대로 복사한데 불과한것이기때문이다.

근로인민을 재집권야욕실현의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자한당》것들이 아무리 인민들을 위한 경제정책을 내놓았다고 고아대도 그에 다시 속아넘어갈 사람은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자한당》것들의 수작은 콩으로 메주를 쑨대도 곧이듣지 않았다. 경제와 민생파탄의 주범인 《자한당》의 반인민적정체를 너무도 잘 알고있기때문이였다.

남조선인민들의 《자한당》반대투쟁은 더는 눈뜨고 볼수 없고 참을래야 참을수 없는 정치추물들의 망동에 대한 치솟는

분노의 표시이다.

민심의 버림과 배척을 받은 《자한당》은 《국회》에서까지 고립배격당하는 가긍한 처지에 빠졌다.

남조선《국회》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이 통과된것은 민주와 인권을 짓밟고 권력형부정부패를 비호조장하는 보수적폐권력청산을 요구해온 남조선민심의 승리이라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 각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그 무슨 《의원직총사퇴》라는 정치광대극까지 벌려놓고 볼썽사납게 놀아대는 《자한당》것들의 행태에 침을 뱉았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개혁정당들은 《국민의 비웃음이나 살 헛발질》, 《박근혜가 탄핵되였을 때 같이 총사퇴를 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었다.》고 조소하였다.

남조선민심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파멸의 벼랑끝에 몰린 저들의 비루한 운명을 건져보기 위한 《자한당》의 단말마적 발악은 극도에 달하였다.

니전투구의 싸움판에서 어느 패거리가 이기든 악취풍기는 적폐의 본당,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파쑈독재부활과 동족대결에 광분하는 《자한당》의 추악한 본태야 어떻게 달라질수 있겠는가.

권력야욕에 환장한 미치광이집단, 상대를 가림없이 물고뜯는것밖에 모르는 미친개무리 《자한당》에 민심은 사형선고를 내렸다.

2020년 새해를 맞으며 남조선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오는 4월 남조선《국회》의원총선거에서 《절대 찍고싶지 않은 정당》 1위에 오른 정당이 다름아닌 《자한당》이라는것이다.

민심을 우롱하고 기만하는데 이골이 난 력사의 반동이며 시대의 오물인 역적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증오와 저주를 반영한 정확한 여론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언제인가 남조선언론에 실린 《<자유한국당>을 구속한다!》라는 시의 일부를 소개한다.

《자유한국당》(《자한당》), 너희들은
좋게 말해서 벌레
있는 그대로 말하면 버러지
솔직한 심정으로 얘기하자면
버러지만도 못한것들
상종할수 없는 인간말종

더러운 권력에게 희생된
민중의 피울음 달래지 못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아프지 않은 날 없는데
산 바다 들판 길목 앓지 않는 땅 없는데

독재타도 민주쟁취 안아준 오월항쟁에
《세월》호학살 진실을 밝히려는 노란 물결에
평화와 통일의 씨 뿌리던 판문점에

《자한당》, 너희는 무엇을 하였느냐
더러운 입으로 다시 총을 쏘고
더러운 입으로 상처를 짓밟고 할퀴고
더러운 입으로 훼방놓지 않았느냐
네 더러운 입에 자유를
네 더러운 입에 민주를
네 더러운 입에 평화를 감히 올리지 말라

사퇴하라
징계하라
물러가라
해체하라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오늘 너희를 향해 다가서는
정의로운 청년들의 웨침을
정의로운 민중들의 고발을

…
분노한 민중은
선량한 민중은
정의로운 민중은
오늘 너희모두를 구속한다!

민족사에는 겨레를 위한 좋은 일은 고사하고 해로운 일에

만 앞장서 날뛴 《자한당》과 그 원조상인 악질보수패당의 죄악의 행적이 생생히 남아있으며 수천만 남조선인민들은 이를 똑똑히 기억하고있다.

보수역적패당이 보수부활의 개꿈으로 파멸의 시간표를 다문 얼마간이라도 늦추어보려고 제아무리 발악해도 력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수 없었다.

민심을 짓밟고 만고죄악의 산을 쌓아놓은 희세의 반역집단—《자한당》은 드디여 자기의 존재를 끝마치고 파멸의 운명을 맞이하였다. 망해버린 《자한당》이 보수떨거지들을 다시 긁어모아 《미래통합당》으로 간판이나 바꾼다고 하여 력사의 무덤속에 다시 처박히는 비참한 말로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는것은 이제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하다.

※　　　※

예로부터 전해져내려오는 이런 말이 있다.

《재물을 잃는것은 작은것을 잃는것이고 벗을 잃는것은 큰것을 잃는것이며 민심을 잃는것은 인생의 모든것을 잃는것이다.》

《자한당》은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자기의 죄과로 하여 민심을 잃었으며 그 무슨 《통합》을 해서 당의 명칭을 바꾸어달았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것을 잃고 력사무대에서 사라져버리고말았다.

격노한 민심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끝내는 력사의 쓰레기통에 처박힌 《자한당》.

시궁창속에서도 더러운 잔명을 유지해보려고 마지막숨을 몰아쉬던 《자한당》의 가련하고 비참한 모습은 민심을 기만하고 우롱하면 천벌을 받고야만다는 력사의 교훈을 통절히 일깨워주고있다.

민심은 천심이며 민심을 거스르면 천벌을 받기마련이다.

지금 《미래통합당》내부에서는 《국회》의원공천과 관련하여 도끼를 들고 《상소》하는 웃지 못할 희비극이 벌어지는 등 각 계파와 파벌들사이에 치렬한 암투가 그칠새없이 벌어져 만사람의 조소를 자아내고있다.

《자한당》이 걸어간 파멸의 길을 태여난지 얼마 되지도 않는 《미래통합당》이 기를 쓰고 따라가고있는것이다.

《미래통합당》에 미래는 없다.

미래없는 《미래통합당》

집　필　김철민, 오보람
장　정　김 영 일
교　정　최 학 철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9(2020)년 3월 23일
발　행　주체109(2020)년 3월 25일

ㄱ—1470ㄷ